

WEBVTT

00:00:11.109 --> 00:00:12.514

안녕하세요?
반갑습니다.

00:00:12.651 --> 00:00:15.241

여러분의 역사 완성자,
류성완입니다.

00:00:15.341 --> 00:00:17.312

너무너무 반갑습니다.
좋습니다.

00:00:17.412 --> 00:00:18.524

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

00:00:18.624 --> 00:00:25.338

이제 4·19 혁명에서
6월 민주 항쟁으로 쪽 넘어오는

00:00:25.438 --> 00:00:31.253

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
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31.353 --> 00:00:36.182

사실 이 현대 역사를
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

00:00:36.282 --> 00:00:41.276

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지혜가
여기 숨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.

00:00:41.376 --> 00:00:44.652

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
학교 내신 시험 대비라든가

00:00:44.752 --> 00:00:48.296

혹은 한국사 특정 시험을 위해서
이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

00:00:48.396 --> 00:00:56.792

무엇보다 이 파트에 대한 철저한
역사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라고

00:00:56.892 --> 00:01:01.195

또 저도 그런 포인트로 이번 수업을
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01.295 --> 00:01:04.006

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
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면서 갈게요.

00:01:04.142 --> 00:01:05.797

언제나 시험 문제의 발이었죠?

00:01:05.897 --> 00:01:08.716

6·25 전쟁의 배경에
대해서 쓰시오.

00:01:08.816 --> 00:01:11.735

이런 거 아마 서술형 문제로
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

00:01:11.835 --> 00:01:15.212

그러니까 배경으로도
나올 게 좀 있고요.

00:01:15.312 --> 00:01:17.932

그다음에 역시 결과로도
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

00:01:18.032 --> 00:01:21.558

만약에 서술형 문제 파트가 들어간다면
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.

00:01:21.658 --> 00:01:28.103

중국의 공산화 해서
조선의용군이 북한의 인민군으로서.

00:01:28.203 --> 00:01:30.139

조선의용군은 광복 이후에도

00:01:30.239 --> 00:01:35.772

중국에 남아서 중국의 공산혁명을 위해서
전투를 3년 가까이 벌이거든요.

00:01:35.872 --> 00:01:39.045

그리고 나서 49년도에
중국의 공산화가 완성되죠.

00:01:39.145 --> 00:01:43.425

그리고 나서 북한의
인민군으로 들어왔다가

00:01:43.525 --> 00:01:49.632

광복 이후 북과 남에 있었던 소련과
미군이 각각 철수했었고요.

00:01:49.732 --> 00:01:53.431

그다음에 50년 초에 당시
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

00:01:53.531 --> 00:01:57.804

에치슨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
방위선에서 어디가 제외됐다?

00:01:57.904 --> 00:02:02.739

한국이 제외되는 그러한
배경을 가져오게 되었었다.

00:02:02.839 --> 00:02:05.341

그리고 나서 6.25 전쟁의
전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?

00:02:05.441 --> 00:02:06.852

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?

00:02:06.952 --> 00:02:08.249

여기서 어떻게 됩니까?

00:02:08.349 --> 00:02:10.278

전쟁 터지자마자 뺑 밀리죠.

00:02:10.378 --> 00:02:14.105

그리고 나서 인천상륙작전

이후로 쪽 끌어올리다가

00:02:14.205 --> 00:02:16.877

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

다시 한번 쪽 밀렸다가

00:02:16.977 --> 00:02:21.280

다시 회복하는, 이거까지가 딱

정확히 1년 걸렸다고 했습니다.

00:02:21.380 --> 00:02:25.106

낙동강 방어선까지 쪽 밀렸다가

인천상륙작전 이후 쪽 북상.

00:02:25.206 --> 00:02:26.472

그다음에 중국군의 참전.

00:02:26.572 --> 00:02:30.324

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퇴를

1.4 후퇴라고 하죠.

00:02:30.424 --> 00:02:35.523

아마 여러분, 국제시장

영화의 시작이

00:02:35.623 --> 00:02:42.572

여기 함흥철수에서 쪽 밀려 내려오는

모습이 나왔고요.

00:02:42.672 --> 00:02:46.080

그 이후 다시 우리

서울을 차지하게 되면서

00:02:46.180 --> 00:02:50.378

1년이 걸렸었다는 거 잘

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2:50.478 --> 00:02:53.523

그리고 나서 3.8선

라인에 고착되고요.

00:02:53.623 --> 00:03:01.229

그 후 2년 동안 소모전, 휴전

논의가 되면서 난항을 겪는다고 했었죠?

00:03:01.329 --> 00:03:03.768

첫 번째, 사항은 휴전선을

어떻게 할 것이냐.

00:03:03.888 --> 00:03:05.731

그다음에 포로교환 방식에 대해서

00:03:05.831 --> 00:03:09.047

어떻게 할 것이냐를

끊임없이 두고 싸우다가

00:03:09.147 --> 00:03:14.235

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
반공포로석방이 나오게 되자

00:03:14.335 --> 00:03:20.020

미국이 경제적 지원이라든가
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

00:03:20.120 --> 00:03:22.987

주한미군의 주둔이라든가
이런 것들 약속하면서

00:03:23.087 --> 00:03:27.317

57년 7월경에 최종적으로
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요.

00:03:27.417 --> 00:03:30.397

이 휴전협정은 여러분,
지금까지도 휴전입니다.

00:03:30.497 --> 00:03:34.651

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태어났을 때
전쟁이 이뤄지지 않았었고요.

00:03:34.751 --> 00:03:36.515

여러분은 더 마찬가지로겠죠.

00:03:36.615 --> 00:03:46.386

그런데 지금까지도 상태만 놓고 보자면
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

00:03:46.486 --> 00:03:48.988

전쟁을 쉬고 있는
상태입니다, 휴전입니다.

00:03:49.088 --> 00:03:52.538

그런 상태였다는 것도
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03:52.638 --> 00:03:54.135

6.25 전쟁에 따른 영향.

00:03:54.235 --> 00:03:58.014

인명손실, 시설파괴,
이산가족, 전쟁고아.

00:03:58.114 --> 00:04:00.494

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
뭐 있었다고 했습니까?

00:04:00.594 --> 00:04:02.910

이거라고 했었죠?
분단의 고착화.

00:04:03.010 --> 00:04:07.206

그러니까 어쨌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
서로의 총부리를 겨눴기 때문에

00:04:07.306 --> 00:04:16.278

이것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서 우리가
끊임없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?

00:04:16.378 --> 00:04:18.896

저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
있지는 못하지만

00:04:18.996 --> 00:04:24.284

그래도 가장 필요한
것은 문화적인 교류.

00:04:24.384 --> 00:04:26.466

어쨌든 교류를 넓혀 나가면서.

00:04:26.566 --> 00:04:29.175

제가 어제 TV보다
보니까 연애프로그램에서

00:04:29.275 --> 00:04:33.211

남과 북의 교류를 이야기하는데
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.

00:04:33.311 --> 00:04:37.513

여러 교류도 있었지만, 그중에서
2005년인가요, 2006년인가요?

00:04:37.613 --> 00:04:41.796

조용필 씨가 북한에서 단독
콘서트를 했었거든요.

00:04:41.896 --> 00:04:46.050

당시 7000~8000명의
북한 사람들이

00:04:46.150 --> 00:04:49.381

조용필 씨 노래를 들으면서
눈물을 흘리더라고요.

00:04:49.481 --> 00:04:50.684

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

00:04:50.784 --> 00:04:56.259

아, 결과적으로 남과 북의 이러한
이념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

00:04:56.359 --> 00:04:58.689

바로 이런 문화의 힘이 아닐까.

00:04:58.789 --> 00:05:02.411

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
또 다른 영화일 수도 있고요.

00:05:02.511 --> 00:05:08.280

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념을 극복할 수
있지 않을까, 라는 생각을 해봤고

00:05:08.380 --> 00:05:14.235

최근에 이런 이념문제로 해서 나왔던
강철비라는 영화, 잘 만들었죠?

00:05:14.335 --> 00:05:16.966

그러한 영화들도 여러분이 한번

00:05:17.066 --> 00:05:19.979

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, 라는
생각을 해봤습니다.

00:05:20.079 --> 00:05:21.828

전후의 정치적 변화
한번 봐주셔야 되겠죠?

00:05:21.928 --> 00:05:24.637

북한에는 김일성 독재
체제가 나오게 되었고요.

00:05:24.737 --> 00:05:30.423

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무리한
개헌으로 인해서 정권연장.

00:05:30.523 --> 00:05:34.481

결과적으로는 이것이 4.19 혁명에
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.

00:05:34.581 --> 00:05:39.347

전후 경제적 변화로는 전후 복구
사업과 미군의 경제적 원조.

00:05:39.447 --> 00:05:41.071

이때 나오는 게 삼백산업.

00:05:41.171 --> 00:05:44.880

저희가 다음 강할 때 이권 좀
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0:05:44.980 --> 00:05:48.684

1공화국, 아마 지난 시간에
여기까지 저희가 나갔을 거예요.

00:05:48.784 --> 00:05:53.782

48년부터 60년까지의 공화국을
우리가 흔히 1공화국이라고 하고요.

00:05:53.882 --> 00:05:56.574

이승만 정부라고도 합니다.

00:05:56.674 --> 00:05:59.915

그 사이에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
6.25 전쟁 있었고요.

00:06:00.015 --> 00:06:02.979

당시에 대통령의 임기는
4년 중임제였거든요.

00:06:03.079 --> 00:06:05.950

4년 중임제라는 게 뭐냐면
지금의 미국하고 똑같아요.

00:06:06.050 --> 00:06:11.607

4년을 하고 현직 대통령이랑 다른 야당
후보랑 다시 한번 선거를 붙어요.

00:06:11.707 --> 00:06:15.781

너 잘했어, 하고 국민이 한 번 더 맡겨주면
한 번 더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.

00:06:15.881 --> 00:06:17.923
그래서 최장 8년입니다.

00:06:18.023 --> 00:06:20.972
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
4년 중임제인데요.

00:06:21.072 --> 00:06:24.849
그러면 48년에서
52년까지 했잖아요.

00:06:24.949 --> 00:06:29.490
그런데 이 52년 선거 때도
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죠,

00:06:29.590 --> 00:06:31.015
전쟁 중이었기 때문에.

00:06:31.115 --> 00:06:34.931
그리고 나서 56년까지 했으면 끝인데
결과으로는 이때 뭐가 있었다?

00:06:35.031 --> 00:06:36.621
54년 2차 개헌.

00:06:36.721 --> 00:06:38.726
이 2차 개헌을 무슨
개헌이라고도 합니까?

00:06:38.826 --> 00:06:44.744
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한다는
거 말씀드렸습니다.

00:06:44.844 --> 00:06:46.374
203명이었고 3분의 2.

00:06:46.474 --> 00:06:48.629
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하려면

00:06:48.729 --> 00:06:52.737
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의 3분의 2
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.

00:06:52.837 --> 00:06:58.985
135.333인데 이때 찬성이
135명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되었는데

00:06:59.085 --> 00:07:05.056
며칠이 지난 다음에 부르더니
가결의 형태로 바뀌었던 것들.

00:07:05.156 --> 00:07:07.482
그런데 이때 2차 개헌의
주된 내용은 뭐였었다?

00:07:07.582 --> 00:07:12.687
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중임제한을
철폐한다, 라는 내용이 있게 되면서

00:07:12.787 --> 00:07:17.211

사실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따져보면
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00:07:17.311 --> 00:07:20.301

그리고 56년 대선은 좀
유명한 대선이라고 그랬죠?

00:07:20.401 --> 00:07:23.876

이때 나왔었던 구호,
너무나 중요합니다.

00:07:23.976 --> 00:07:27.356

당시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
못 살겠다, 갈아보자.

00:07:27.456 --> 00:07:29.859

당시 여당인 자유당에서는
갈아봤자, 더 못산다.

00:07:29.959 --> 00:07:34.703

그랬더니 당시 무소속이었던
조봉암은 혁신만이 살길이다, 해서

00:07:34.803 --> 00:07:40.032

진보개혁 정치를 표방하게 되는데
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

00:07:40.132 --> 00:07:45.123

당시에 유력 야당의 대통령
후보였던 신익희가 죽게 되면서

00:07:45.223 --> 00:07:48.176

이승만과 조봉암의 1:1 구도.

00:07:48.276 --> 00:07:51.998

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
부정선거가 있게 되었고요.

00:07:52.098 --> 00:07:54.392

당시에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

00:07:54.492 --> 00:07:58.888

유효득표의 30%를
보여주었던 조봉암이

00:07:58.988 --> 00:08:04.080

58년도에 진보당 사건으로
최종적으로는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

00:08:04.180 --> 00:08:07.924

59년도에 간첩으로 몰리면서
사형을 당하게 되었었다.

00:08:08.024 --> 00:08:11.712

그렇지만 이게 2011년
대법원의 재심 판결에 의해서

00:08:11.812 --> 00:08:17.124

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었다는
것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8:17.224 --> 00:08:19.785
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.

00:08:19.885 --> 00:08:22.486
이제 60년으로
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

00:08:22.586 --> 00:08:26.366
60년에 들어오면 다시
한 번 선거가 진행됩니다.

00:08:26.466 --> 00:08:30.409
그러니까 여러분, 여기 56년 대선에서는
부통령은 누가 당선되었었다고요?

00:08:30.509 --> 00:08:32.354
장면이 당선되었었다고요.

00:08:32.454 --> 00:08:38.339
그런데 이 부통령은 대통령이
있을 때는 아무 실권이 없어요.

00:08:38.439 --> 00:08:41.033
그러니까 사실은 당시
자유당이었던 여당이

00:08:41.133 --> 00:08:44.598
이거는 좀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

00:08:44.698 --> 00:08:46.871
부정선거를 그나마 덜
했었던 것 같습니다.

00:08:46.971 --> 00:08:49.861
그러면서 장면이
당선되었던 것 같은데

00:08:49.961 --> 00:08:53.744
이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
칠순이 훨씬 넘었었거든요.

00:08:53.844 --> 00:08:58.197
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당시의
평균 수명이랑 비교해보면

00:08:58.343 --> 00:09:02.012
이상할 게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4년
동안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?

00:09:02.112 --> 00:09:06.295
당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면 모든
권력을 장면이 장악하게 되니까.

00:09:06.395 --> 00:09:08.926
그 상태에서 60년
선거가 된 거예요.

00:09:09.026 --> 00:09:12.658
60년 역시 자유당의 후보는
대통령 후보 이승만,

00:09:12.758 --> 00:09:14.193

부통령 이기붕이었구요.

00:09:14.293 --> 00:09:16.509

민주당에는 조병옥, 장면이었는데

00:09:16.609 --> 00:09:19.733

희한하게 이승만이라는 인물과

00:09:19.833 --> 00:09:22.803

대통령 후보에서만 붙으면
죽임을 당합니다.

00:09:22.903 --> 00:09:24.707

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.

00:09:24.807 --> 00:09:26.701

어쨌든 조병옥이 죽었고요.

00:09:26.801 --> 00:09:30.162

이때는 후보가 1인 후보였어요.

00:09:30.262 --> 00:09:31.895

그러니까 가부만 묻는 거였기 때문에

00:09:31.995 --> 00:09:34.535

거의 당선이 이미
결정되어있던 상태였고

00:09:34.635 --> 00:09:37.217

사실 3.15 부정 선거의
핵심은 뭐였습니까?

00:09:37.317 --> 00:09:39.786

여기에 있는 이 부통령
선거였습니다.

00:09:39.886 --> 00:09:44.233

부통령 이기붕을 당선 시키기
위해서 노력했었다.

00:09:44.333 --> 00:09:49.948

말이 좋아 노력이지 어마어마한
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이겠죠?

00:09:50.048 --> 00:09:53.844

그런데 이때 희한한 게
이기붕이 당선됩니다.

00:09:53.944 --> 00:09:57.564

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
폭발하기 시작해요.

00:09:57.664 --> 00:10:01.853

야, 너 찍었어? 너? 넌? 하면서
주변에 찍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

00:10:01.953 --> 00:10:11.505

어떤 특정 구역에서는 80~90%의
이기붕의 득표율이 나오는 것이죠.

00:10:11.605 --> 00:10:13.537

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.

00:10:13.637 --> 00:10:17.684

부산, 마산 지역 일대에서 엄청난
큰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요.

00:10:17.784 --> 00:10:24.556

그때 마산 상고 1학년 학생이었던
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이 박힌 채

00:10:24.656 --> 00:10:28.404

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.

00:10:28.504 --> 00:10:32.880

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전국으로
이 시위가 확대되었었고

00:10:32.980 --> 00:10:36.866

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의
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.

00:10:36.966 --> 00:10:43.052

이때 대학 교수단 협의회라든가 이런
데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

00:10:43.152 --> 00:10:45.539

4.19 혁명이 완성되게 되었고

00:10:45.639 --> 00:10:49.182

결과적으로는 당시에
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

00:10:49.282 --> 00:10:54.014

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를
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나게 되죠.

00:10:54.114 --> 00:10:58.460

이게 바로 3.15 부정 선거에
다른 4.19 혁명입니다.

00:10:58.560 --> 00:11:06.120

여러분, 최근에 1000만 넘은 영화
택시 운전사에서 보면

00:11:06.272 --> 00:11:08.658

5.18 민주화운동의 배경이었죠?

00:11:08.758 --> 00:11:11.428

그다음에 또 최근에 역시
히트치고 있는 영화,

00:11:11.528 --> 00:11:16.746

한창 잘 나가다가 신과 함께라는
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나게 되면서

00:11:16.846 --> 00:11:23.200

흥행에서는 조금 치우쳐있지만 그래도
너무나 의미 있는 영화 1987.

00:11:23.300 --> 00:11:24.923

이거 6월 민주항쟁 아십니까?

00:11:25.023 --> 00:11:32.179
그러니까 근현대사의 3대 사건이라는
5.18 민주화운동이랑

00:11:32.279 --> 00:11:35.598
6월 민주항쟁이 거의 엄청난
공전의 히트를 남겼습니다.

00:11:35.698 --> 00:11:38.018
그러다 보니까 하나
남은 건 뭐밖에 없다?

00:11:38.118 --> 00:11:39.665
4.19 혁명이다.

00:11:39.765 --> 00:11:41.708
이 4.19 혁명,
머지않아 이어나가겠습니다.

00:11:41.808 --> 00:11:42.886
저는 이거 정보 아무것도 없습니다.

00:11:42.986 --> 00:11:44.880
그냥 제 축이에요.

00:11:44.980 --> 00:11:48.565
4.19 혁명 영화로 아마
몇 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.

00:11:48.665 --> 00:11:52.755
나온다면 엄청난 흥행이
되지 않을까.

00:11:52.855 --> 00:11:54.386
그래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

00:11:54.486 --> 00:11:58.078
당시의 역사적 현실과 사회고발.

00:11:58.178 --> 00:12:02.209
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
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나.

00:12:02.309 --> 00:12:05.179
사실 그거 자체가
역사 공부 아십니까?

00:12:05.279 --> 00:12:08.460
제 수업 이런 거 듣는 거
너무 의미 있고 좋은 거지만

00:12:08.560 --> 00:12:13.512
일반 대중들한테 제 수업이
많이 알려져 있진 않잖아요.

00:12:13.612 --> 00:12:15.501
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
뭐하면 된다?

00:12:15.601 --> 00:12:17.369

역사 영화 한 편 보면 된다.

00:12:17.469 --> 00:12:21.284

특히 현대 쪽에 영화를
한 편 본다는 건

00:12:21.384 --> 00:12:26.725

엄청난 역사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
거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2:26.825 --> 00:12:30.797

혹시라도 아직 안 본
친구들 있으면 보시고

00:12:30.924 --> 00:12:34.173

택시운전사는 극장에서 내렸으니까.

00:12:34.273 --> 00:12:38.904

아마 이 강의 들을 때쯤
보면 다 내렸겠네요.

00:12:39.004 --> 00:12:42.424

그리고 이거는 또 특히 겨울에
찍고 있는데 2학기 대비잖아요.

00:12:42.524 --> 00:12:46.122

어쨌든 요즘은 워낙에 좋은
것들이 많이 있으니까

00:12:46.222 --> 00:12:51.632

VOD든 유튜브든 해서 여러분이
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2:51.732 --> 00:12:56.114

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
1공화국은 무너졌습니다.

00:12:56.214 --> 00:12:59.445

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
있는 공화국이 2공화국.

00:12:59.545 --> 00:13:00.904

즉 장면 정부인데요.

00:13:01.004 --> 00:13:05.573

장면 정부는 채 1년이
가지 못합니다.

00:13:05.673 --> 00:13:09.092

이때 4.19 혁명
이후 헌법을 바꾸죠.

00:13:09.192 --> 00:13:12.194

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니라
무슨 체제로 갑니까?

00:13:12.294 --> 00:13:15.235

의원내각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

00:13:15.335 --> 00:13:21.426

그리고 나서 선거를 또 치러서 이
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합니다.

00:13:21.526 --> 00:13:23.696

그런데 선생님, 좀
특이한 게 있습니다.

00:13:23.796 --> 00:13:25.223

아니, 대통령제에서
바뀌었다면서요?

00:13:25.323 --> 00:13:26.409

그런데 왜 대통령이 있어요?

00:13:26.509 --> 00:13:28.720

이게 좀 특이해요.

00:13:28.820 --> 00:13:33.215

대통령은 약간 얼굴마담
형태로 남겨두고

00:13:33.315 --> 00:13:36.193

모든 실권은 당시 총리가
가지고 있었거든요.

00:13:36.293 --> 00:13:42.334

그래서 이 2공화국을 장면 내각
내지는 장면 정부라고 합니다.

00:13:42.434 --> 00:13:44.864

그런데 이때 대통령은 있었습니다.

00:13:44.964 --> 00:13:48.295

둘 다 민주당이고
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.

00:13:48.395 --> 00:13:51.369

그리고 나서 헌법을
또 한 번 바꿉니다.

00:13:51.469 --> 00:13:52.820

어떤 헌법으로 바꾸냐면

00:13:52.920 --> 00:13:57.283

당시에 이 4.19 혁명의 관련자들을
처벌하기 위한 헌법도 바꿉니다.

00:13:57.383 --> 00:14:03.819

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2공화국의 주된
내용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4:03.919 --> 00:14:08.245

지방자치제 시행을 본격적으로
시작하려고 하고요.

00:14:08.345 --> 00:14:10.750

경제개발 5개년 개발을 계획합니다.

00:14:10.850 --> 00:14:12.901

물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

00:14:13.001 --> 00:14:17.395

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
박정희가 이용하게 되죠.

00:14:17.495 --> 00:14:20.175

그다음에 각계각층의 민주화
요구가 이어집니다.

00:14:20.275 --> 00:14:21.657

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.

00:14:21.757 --> 00:14:23.810

그 앞에 있었던 독재정권이
무너지게 되면서

00:14:23.910 --> 00:14:27.337

이제는 민주 정권이 들어섰으니까
각계각층이 다 요구하는 거야.

00:14:27.437 --> 00:14:30.621

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

00:14:30.721 --> 00:14:35.147

2017년에 대한민국 상황일 수도
있었을 것 같아요.

00:14:35.247 --> 00:14:37.611

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든가

00:14:37.711 --> 00:14:40.500

이런 것들이 대해서 촛불
혁명이 있게 되었고요.

00:14:40.600 --> 00:14:43.389

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했으면

00:14:43.489 --> 00:14:46.186

훨씬 더 혼란스러운 정부로
바뀔 수 있었는데

00:14:46.286 --> 00:14:49.261

현 정부에서는 워낙에
그걸 잘 대처하고 있어서

00:14:49.361 --> 00:14:53.403

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이 보이고 있지
않나,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.

00:14:53.503 --> 00:14:56.463

어쨌든 이게 바로 그렇게 할 수
있었던 이유가 뭘까요?

00:14:56.563 --> 00:14:58.649

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그렇습니다.

00:14:58.749 --> 00:15:01.017

이때, 이 민주화 요구가
거세지게 되면서

00:15:01.117 --> 00:15:04.082

또 한 번의 다른 군사정부가

오게 되었었거든요.

00:15:04.182 --> 00:15:07.813
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
거죠, 이런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.

00:15:07.913 --> 00:15:10.940
지금의 기성세대, 저도 기성세대지만

00:15:11.040 --> 00:15:16.199
저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저희
어머니 세대나 혹은 할머니 세대.

00:15:16.299 --> 00:15:20.736
이 정도 세대 정도가 된다면.

00:15:20.836 --> 00:15:25.128
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
민주화 요구들이 있게 되면,

00:15:25.228 --> 00:15:27.567
물론 그 민주당 요구라는
건 좋은 요구들이지만

00:15:27.667 --> 00:15:30.045
오히려 이것이 국가적
혼란을 야기하게 되면서

00:15:30.145 --> 00:15:35.296
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.

00:15:35.396 --> 00:15:38.374
그렇게 되면서 2017년,
2018년의 대한민국은

00:15:38.474 --> 00:15:42.923
그런 것들을 워낙에 잘 대처했다고
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15:43.023 --> 00:15:45.316
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.

00:15:45.416 --> 00:15:49.279
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
안에서의 내분이 있었습시다.

00:15:49.379 --> 00:15:51.245
구파, 신파의 내분인데요.

00:15:51.345 --> 00:15:54.218
구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.

00:15:54.358 --> 00:15:57.830
민주당에서 이미 과거부터 권력을
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

00:15:57.930 --> 00:16:00.366
신파, 약간 신진세력들이겠죠?

00:16:00.466 --> 00:16:03.196
당시의 총리였던 장면을 필두로 하는

00:16:03.296 --> 00:16:06.363

이 민주당 안에서의
신파와 구파의 대립이

00:16:06.463 --> 00:16:10.118

훨씬 더 이러한 혼란의
상황을 이끌어나가는데

00:16:10.218 --> 00:16:14.049

조금은 저해했던
요소들이 있었습니다.

00:16:14.149 --> 00:16:18.880

이게 바로 4.19 혁명 당시
대학교수단의 시위가 되겠죠?

00:16:18.980 --> 00:16:21.389

4월 25일 시국 선언을
발표한 대학교수들은

00:16:21.489 --> 00:16:27.794

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내걸고
국회 앞으로 행진하였다고 합니다.

00:16:27.894 --> 00:16:29.441

이게 바로 4.19 혁명이죠?

00:16:29.541 --> 00:16:31.983

대학교수단 시국 선언문을
잠깐 보자면

00:16:32.083 --> 00:16:35.227

1. 마산, 서울 기타
각지의 학생 데모는

00:16:35.327 --> 00:16:38.382

주권을 빼앗긴 국민의
울분을 대신하여

00:16:38.482 --> 00:16:41.721

열기한 학생들의 순진한
정의감의 발로이며

00:16:41.821 --> 00:16:45.391

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
민족정기의 표현이다.

00:16:45.491 --> 00:16:52.049

4. 누적된 부패와정과 횡포로써
민족적 대참극, 대치욕을 초래케 한

00:16:52.149 --> 00:16:55.656

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
책임을 지고 물러나라.

00:16:55.756 --> 00:16:58.452

5. 3.15 선거는
불법 선거이다.

00:16:58.552 --> 00:17:02.782

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
선거를 다시 실시하라, 라고

00:17:02.882 --> 00:17:10.831
당시 전국 대학교수단에서 4월
25일에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.

00:17:10.931 --> 00:17:12.886
이게 결과적으로는 거의 결정타였죠.

00:17:12.986 --> 00:17:18.225
4.19 혁명의 마지막 방점이었다,
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
00:17:18.325 --> 00:17:23.755
문제는 어쨌든 제가 아까
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혼란의 상태에서

00:17:23.855 --> 00:17:30.244
1961년 5월 16일, 당시
군인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.

00:17:30.344 --> 00:17:35.002
우리는 이것을 5.16
군사 정변이라고 하고요.

00:17:35.102 --> 00:17:42.095
잡고 나서 만들었던 당시의
우리나라 최고권력기구가

00:17:42.195 --> 00:17:43.495
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돼요.

00:17:43.595 --> 00:17:47.254
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
의장이 박정희였습니다.

00:17:47.354 --> 00:17:51.377
그래서 이 2년간의
군정기를 겪게 됩니다.

00:17:51.477 --> 00:17:52.915
반공을 국시로 했고요.

00:17:53.015 --> 00:17:56.493
공산당에 반대하는 걸 국가적
시책 사업으로 삼았다는 것이고.

00:17:56.593 --> 00:17:57.775
국회를 해산해버립니다.

00:17:57.875 --> 00:18:00.154
그리고 언론 탄압,
중앙정보부 창설.

00:18:00.254 --> 00:18:03.953
이 정부정보부가 시간이 바뀌면서
80년대에 안기부가 되고요.

00:18:04.053 --> 00:18:09.669
그러고 나서 그제 시간이 바뀌어서

지금의 국정원이 됩니다.

00:18:09.769 --> 00:18:11.885

그다음에 화폐 계획,
농가 부채 탕감.

00:18:11.985 --> 00:18:15.066

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요.

00:18:15.166 --> 00:18:20.507

그리고 사실 이때 군사 정변을 처음
일으킬 때 박정희가 뭐라고 하나면

00:18:20.607 --> 00:18:23.089

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.

00:18:23.189 --> 00:18:27.861

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
혼란기를 군인들이 정치 하고 나서

00:18:27.961 --> 00:18:33.040

정말로 양심적인 좋은
정치인이 나타나게 된다면

00:18:33.140 --> 00:18:35.739

우리는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고

00:18:35.839 --> 00:18:39.821

다시 군 본연의 임무로
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.

00:18:39.921 --> 00:18:43.741

그 약속을 지킬까요?
못 지킬까요?

00:18:43.841 --> 00:18:46.818

정확히 지킵니다.

00:18:46.918 --> 00:18:49.901

선생님, 아닌데? 제가 학교
수업에서 배우다 보니까

00:18:50.001 --> 00:18:56.955

63년도에 박정희랑 윤보선이랑 대통령
선거에 붙는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?

00:18:57.055 --> 00:19:01.222

맞아요, 그런데 박정희가
보니까 뭐라고 하나면

00:19:01.322 --> 00:19:07.273

희한하게 내가 아무리 봐도 양심적인
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.

00:19:07.373 --> 00:19:12.876

그런데 양심은 정말로 잘 지키는데
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.

00:19:12.976 --> 00:19:15.643

그가 누구니까?
박정희입니다, 본인이 볼 때.

00:19:15.743 --> 00:19:16.935
그래서 어떻게 해요?

00:19:17.035 --> 00:19:18.369
본인이 군복을 벗어요.

00:19:18.469 --> 00:19:22.152
그래서 일반인 정치인이 돼서
당시에 선거에 붙습니다.

00:19:22.252 --> 00:19:24.001
이게 63년 대선이에요.

00:19:24.101 --> 00:19:26.867
이 63년 대선도 엄청나게
박빙으로 흘러갑니다.

00:19:26.967 --> 00:19:30.355
그래서 이때 아주 간발의
차이로 누가 이기냐,

00:19:30.455 --> 00:19:33.264
박정희가 63년 대선에서 이깁니다.

00:19:33.364 --> 00:19:36.033
그리고 나서 경제개발을
해야 되잖아요.

00:19:36.133 --> 00:19:40.343
그래서 62년부터 경제개발
1차 계획을 시작하게 되고요.

00:19:40.443 --> 00:19:43.773
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
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

00:19:43.873 --> 00:19:47.078
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넘게

00:19:47.178 --> 00:19:51.063
가혹하게 통치했던 거에 대한
보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

00:19:51.163 --> 00:19:55.979
그래서 한일협정, 국교 수교를 다시 미국에
상당히 강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.

00:19:56.079 --> 00:19:57.829
그래서 국교 수교를
시작하게 됩니다.

00:19:57.929 --> 00:19:59.807
이게 63년이구요.

00:19:59.907 --> 00:20:07.487
당시에 일본의 외상이었던
오히라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

00:20:07.587 --> 00:20:10.789
그 과정에서 오히라 메모가

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

00:20:10.889 --> 00:20:12.540
파장이 일어나게 돼요.

00:20:12.640 --> 00:20:18.933
그래서 굴욕적인 이 한일협정에
반대하는 항쟁이 나오게 됩니다.

00:20:19.033 --> 00:20:24.578
이게 1964년도 6월 3일에 당시
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항쟁을 벌입니다.

00:20:24.678 --> 00:20:29.296
이게 6.3 시위 내지는 6.3
항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

00:20:29.396 --> 00:20:33.049
이게 바로 6.3 시위입니다.

00:20:33.802 --> 00:20:37.542
1964년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
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

00:20:37.642 --> 00:20:39.487
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자

00:20:39.587 --> 00:20:46.174
이에 반대하는 6.3 시위가
전국에서 일어났다고 나와 있고요.

00:20:46.274 --> 00:20:52.215
그 이후 이 6.3 항쟁이 있었지만
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.

00:20:52.315 --> 00:20:57.154
사실 한일협정의 정식 명칭은
한일기본조약이에요.

00:20:57.254 --> 00:21:00.866
그런데 이때 가장 큰
문제가 뭐였었냐,

00:21:01.580 --> 00:21:03.458
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.

00:21:03.558 --> 00:21:07.885
적어도 30년 넘게
우리의 독립투사들.

00:21:07.985 --> 00:21:11.173
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자나
이런 것들을 수탈해갔으면

00:21:11.273 --> 00:21:13.415
국가 차원에서 사과 한마디는
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

00:21:13.546 --> 00:21:14.929
사과 없었습니다.

00:21:15.029 --> 00:21:18.081

그리고 배상문제가 완벽하게
해결되지 못했어요.

00:21:18.181 --> 00:21:25.124

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
받았던 게 유상 3억.

00:21:25.224 --> 00:21:29.261

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린 겁니다.

00:21:29.361 --> 00:21:35.380

빌린 돈 3억 달러 그다음에
무상으로 주는 게 3억 달러였고요.

00:21:35.480 --> 00:21:38.450

민간 차관이 2억 달러가
들어오게 됩니다.

00:21:38.550 --> 00:21:40.480

물론 큰돈이죠.

00:21:40.580 --> 00:21:44.746

그러니까 그 돈으로서
경부고속도로도 뚫게 되고

00:21:44.846 --> 00:21:46.311

포항제철 만들게 되면서

00:21:46.411 --> 00:21:50.449

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만드는 데
아주 중요한 자본을 썼던 건 사실입니다.

00:21:50.549 --> 00:21:53.349

그렇지만 이것이
35년, 36년 동안

00:21:53.449 --> 00:21:57.784

우리 민족의 고혈을 짜내가면서
수탈했었던 대가로는

00:21:57.884 --> 00:22:00.766

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던
건 당연합니다.

00:22:00.866 --> 00:22:02.857

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

00:22:02.957 --> 00:22:06.464

이 돈 받으면서, 그러니까 무상
3억 받으면서 뭐가 끝나버리냐면

00:22:06.564 --> 00:22:09.202

개인 청구권에 대한
문제가 다 끝나버려요.

00:22:09.302 --> 00:22:11.767

일본이 그걸 받아간 것이죠.

00:22:11.867 --> 00:22:12.753

그러니까 이런 거죠.

00:22:12.853 --> 00:22:17.106

일본 입장에서야, 이거
유상 3억, 무상 3억 주고.

00:22:17.206 --> 00:22:19.988

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건 값을
돈이죠, 3억 달러를 빌려준 거죠.

00:22:20.088 --> 00:22:22.547

3억 달러는 주고
3억 달러는 빌려주고

00:22:22.647 --> 00:22:26.674

민간 차원에서 2억 달러는
나름의 지원을 해주는.

00:22:26.774 --> 00:22:28.175

이것도 당연히 값을 겁니다.

00:22:28.275 --> 00:22:31.664

그 형태로 이제는 너랑 나랑,

00:22:31.764 --> 00:22:35.098

우리 일제식민지배에 대한
청구권 다 끝난다? 라고 한 거예요.

00:22:35.198 --> 00:22:36.839

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00:22:36.939 --> 00:22:38.992

그래서 지금 가장 가슴
아픈 게 뭐가 있습니까?

00:22:39.092 --> 00:22:43.312

여러분, 참 좋은 영화 중에서
아이 캔 스피크 본 적 있으십니까?

00:22:43.412 --> 00:22:45.112

그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22:45.212 --> 00:22:48.231

거기 보면 우리 일본군 위안부.

00:22:48.331 --> 00:22:51.176

정말로 지금은 할머니가 돼계신

00:22:51.276 --> 00:22:54.565

당시 10대 소녀들의 삶을

00:22:54.665 --> 00:22:58.302

정말로 무참히
망가뜨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

00:22:58.402 --> 00:23:02.818

그렇지만 그 할머니들이
일본에 요구하면

00:23:02.951 --> 00:23:04.789

일본은 지금도 사과하지
않고 있고요.

00:23:04.889 --> 00:23:07.714

개인 청구권을 요구한다든가
해도 주지 않습니다.

00:23:07.814 --> 00:23:11.274

일본은 뭐라고 하나면
야, 우리 그때 65년도에 너희 주고

00:23:11.374 --> 00:23:13.716

다 통친 거야, 끝났어, 라고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3:13.816 --> 00:23:15.497

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

00:23:15.597 --> 00:23:16.962

그게 바로 이거였어요.

00:23:17.062 --> 00:23:19.290

그래서 배상문제가 제대로
체결되지 않았었고요.

00:23:19.390 --> 00:23:23.204

또 하나의 문제는 독도
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아요.

00:23:23.304 --> 00:23:27.651

독도를 확실히 일본에서 한국으로
넘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.

00:23:27.751 --> 00:23:29.200

이게 참 애매하게 넘어가 버려요.

00:23:29.300 --> 00:23:34.741

이게 지금까지도 독도 문제가
야기된 시작점이 바로 이겁니다.

00:23:34.841 --> 00:23:38.485

이게 참 문제점이 많았어요.

00:23:38.585 --> 00:23:42.429

그리고 또 하나
이때 64년 말에 시작해서

00:23:42.529 --> 00:23:46.000

65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
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.

00:23:46.100 --> 00:23:48.322

이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.

00:23:48.422 --> 00:23:53.532

물론 이 베트남 파병으로 당시에
우리나라 군수산업이라든가

00:23:53.632 --> 00:23:59.315

혹은 부족했었던 외환 달러가 우리나라에
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.

00:23:59.415 --> 00:24:02.872

그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나

00:24:02.972 --> 00:24:05.732
군사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던
게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었고

00:24:05.887 --> 00:24:10.157
당시에 국내에서는 베트남 특수.

00:24:10.257 --> 00:24:12.454
왜 그러냐면 베트남 지역에서
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

00:24:12.554 --> 00:24:16.944
우리의 많은 젊은이가 가다 보니까
그것에 대해서 뭐?

00:24:17.044 --> 00:24:19.227
우리나라 안에서의
경제가 있게 돼요.

00:24:19.327 --> 00:24:21.193
당시 유행했던 노래가

00:24:21.293 --> 00:24:24.592
(노래) 월남에서 돌아온
새까만 김 상사

00:24:24.692 --> 00:24:25.645
이런 노래가 있었어요.

00:24:25.745 --> 00:24:27.332
아마 할머니들 물어보면
아실 거예요.

00:24:27.432 --> 00:24:32.870
그러한 나름의 장점이
있었음에도 불구하고

00:24:32.970 --> 00:24:36.386
외국 안에서의 내전
형태로 치러졌던 전쟁에

00:24:36.486 --> 00:24:45.204
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피땀 흘려서
죽어갔던 거에 대한 보상은

00:24:45.304 --> 00:24:46.576
받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.

00:24:46.676 --> 00:24:51.153
희생자라든가 특히 저희 이모부께서
이때 베트남 참전 용사셨는데

00:24:51.253 --> 00:24:53.552
이 고엽제 문제 때문에
지금도 그러고 계세요.

00:24:53.652 --> 00:24:56.701
참 안타깝습니다.

00:24:56.801 --> 00:25:01.143

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
지원해줬던 게 맞지만

00:25:01.243 --> 00:25:04.958

베트남 전쟁에는 사실
유엔군이 파병되지 않거든요.

00:25:05.058 --> 00:25:07.539

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이랑은 좀

00:25:07.639 --> 00:25:10.806

구분을 해서 바라봐야 될
측면이 하나 있고요.

00:25:10.906 --> 00:25:16.363

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의 전쟁을
우리 젊은 희생자들이...

00:25:16.463 --> 00:25:19.098

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
반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

00:25:19.198 --> 00:25:22.636

선생님, 한국 전쟁 때도

00:25:22.736 --> 00:25:26.066

16개 국가가 우리나라를
도와주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?

00:25:26.166 --> 00:25:28.874

그건 유엔군으로 온 겁니다.

00:25:28.974 --> 00:25:31.292

세계 평화를 위해서
유엔군으로 왔었는데

00:25:31.392 --> 00:25:35.082

베트남 전쟁에서는 유엔군이
파병되지 않습니다.

00:25:35.182 --> 00:25:37.328

미국이 주도해서 하게 되거든요.

00:25:37.428 --> 00:25:39.893

그러다 보니까 이건
사실 명분 입장에서는

00:25:39.993 --> 00:25:44.176

한국 전쟁이랑 비교할 수 없는
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

00:25:44.276 --> 00:25:45.105

안타깝죠.

00:25:45.205 --> 00:25:47.371

이게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.

00:25:47.471 --> 00:25:51.522

미국은 파병 비용을 부담하고
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한다.

00:25:51.622 --> 00:25:53.894

한국군 현대화에 대해서
이야기하는 것이고요.

00:25:53.994 --> 00:25:59.486

베트남 주둔 한국군 지원 사업과 현지의
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.

00:25:59.586 --> 00:26:03.427

미국은 한국에 군사 원조와
차관을 제공한다.

00:26:03.527 --> 00:26:05.995

이러한 내용이 이 브라운 각서.

00:26:06.095 --> 00:26:07.327

이건 뭐랑 관련된다?

00:26:07.427 --> 00:26:11.224

베트남 파병과 관련된다는
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26:11.324 --> 00:26:14.232

그러면 이때 봅시다.

00:26:14.332 --> 00:26:17.073

당시에 대통령제도 역시
4년 중임제였거든요.

00:26:17.173 --> 00:26:21.432

그러면서 63년에 대통령 됐으니까
언제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?

00:26:21.532 --> 00:26:23.575

67년까지 이렇게 하면 4년 되죠?

00:26:23.675 --> 00:26:26.699

이 67년 대선에서 또
윤보선하고 붙는데요.

00:26:26.799 --> 00:26:29.560

이때는 박정희가 조금
쉽게 이깁니다.

00:26:29.660 --> 00:26:33.700

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
71년까지만 하면 끝나는데

00:26:33.800 --> 00:26:40.042

이때 69년 개헌이 시작되죠.

00:26:40.142 --> 00:26:42.234

이걸 우리가 흔히 6차
개헌이라고 하는데요.

00:26:42.334 --> 00:26:44.296

다른 말로는 3선
개헌이라고 합니다.

00:26:44.396 --> 00:26:48.345

대통령을 세 번까지는
허용해주자, 라는 거예요.

00:26:48.445 --> 00:26:53.814
이때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전국에서
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.

00:26:53.914 --> 00:26:55.805
그렇지만 어쨌든 통과가 됩니다.

00:26:55.905 --> 00:27:00.358
그리고 나서 71년도에 다시 한번
대통령 선거에서 붙게 되는데요.

00:27:00.458 --> 00:27:02.628
이때가 그 유명한
누구랑 누가 붙는다?

00:27:02.728 --> 00:27:04.369
박정희와 김대중.

00:27:04.469 --> 00:27:07.836
여러분은 김대중 대통령
생각하면 어떻습니까?

00:27:07.936 --> 00:27:11.791
약간 걷는 게 좀 불편했었고요.

00:27:11.891 --> 00:27:19.591
말하는 것도 약간
명석하게 말하지 못했죠.

00:27:19.749 --> 00:27:21.477
왜 그리냐면 70세가 넘어서
대통령이 됐기 때문에

00:27:21.577 --> 00:27:22.757
좀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.

00:27:22.907 --> 00:27:25.931
그런데 여러분, 이거 유튜브 같은 데
찾아보면 이때 영상이 있거든요.

00:27:26.031 --> 00:27:26.657
보세요.

00:27:26.757 --> 00:27:29.625
당시 김대중 대통령은
40대 기수론이었습니다.

00:27:29.725 --> 00:27:35.079
그리고 나서 당시 신민당 안에
김영삼이라든가 이철승.

00:27:35.209 --> 00:27:40.449
이러한 아주 쟁쟁한 후보들을
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됐었고요.

00:27:40.549 --> 00:27:45.164
제가 뽑은 우리나라 3대
웅변가 중의 한 명입니다.

00:27:45.264 --> 00:27:48.664
제가 강의 중에 한 번
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, 여운형.

00:27:48.764 --> 00:27:50.312
최고의 연변가였대요.

00:27:50.412 --> 00:27:52.499
광복 이후에 많은 사람이
모였을 때 이야기하고.

00:27:52.599 --> 00:27:53.748
두 번째, 김대중.

00:27:53.848 --> 00:27:57.007
말 진짜 잘합니다.

00:27:57.107 --> 00:27:58.573
엄청난 웅변가입니다.

00:27:58.673 --> 00:28:02.590
그리고 나서 현대에서는 잘하시는
분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

00:28:02.690 --> 00:28:05.575
제가 볼 때는
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가

00:28:05.675 --> 00:28:08.220
아마 3대 웅변가로
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
00:28:08.320 --> 00:28:12.057
필적할만한 인물이 당시에
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.

00:28:12.157 --> 00:28:15.368
당시 김대중 대통령이
연설했던 게 한강 백사장.

00:28:15.468 --> 00:28:20.421
지금은 한강 시민공원이 된 여의도
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대요.

00:28:20.521 --> 00:28:24.847
그 상태에서 연설하는데
찌렁찌렁합니다.

00:28:24.947 --> 00:28:28.150
지금도 아마 그 영상 유튜브
같은 데서 찾아보면 나와요.

00:28:28.250 --> 00:28:31.463
아마 이 선거에서 박정희
후보가 이기게 된다면

00:28:31.563 --> 00:28:35.585
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
아니라 무엇으로 끝나게 된다?

00:28:35.685 --> 00:28:37.620

중신 집권으로 연장할 것이다.

00:28:37.720 --> 00:28:42.553

여러분, 속으면 안 됩니다! 하고 피를
토하면서 연설을 하는 게 있어요.

00:28:44.781 --> 00:28:46.091

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
그렇게 하죠.

00:28:46.237 --> 00:28:47.571

나, 더 할 생각 없다.

00:28:47.671 --> 00:28:49.938

여러분한테 내가 표
구걸할 생각도 없고

00:28:50.038 --> 00:28:51.999

나 정말로 한 번만 더 믿어주면

00:28:52.099 --> 00:28:53.772

나 정말로 더 이상 여러분한테

00:28:53.872 --> 00:28:57.245

표 달라는 이야기 안 하겠다, 라고
하고 어떻게 합니까?

00:28:57.345 --> 00:29:00.258

그 말을 또 정확히 지키죠.
어떻게요?

00:29:00.358 --> 00:29:05.057

국민의 직접 투표권을 없애버리니까
그거는 정확히 지켜내요.

00:29:05.157 --> 00:29:08.975

그래서 이 박정희 후보가
이때 또 이깁니다.

00:29:09.075 --> 00:29:13.451

그러고 나서 72년에
무엇을 선포하죠?

00:29:13.551 --> 00:29:14.952

유신을 선포합니다.

00:29:15.052 --> 00:29:18.811

유신은 여기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.

00:29:18.911 --> 00:29:24.617

유신헌법이라는 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
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어놔요.

00:29:24.717 --> 00:29:28.287

그러니까 여기에서만
대통령을 뽑는 겁니다.

00:29:28.387 --> 00:29:32.408

그러니까 일반 국민의
투표권을 빼앗아버린 거죠.

00:29:32.508 --> 00:29:35.346

그러니까 더이상 표 달라고
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

00:29:35.446 --> 00:29:38.747

그런데 사실 이 유신헌법이라는
게 7차 개헌 헌법인데

00:29:38.847 --> 00:29:40.654

바로 나온 게 아니라

00:29:40.754 --> 00:29:44.344

7월 4일에 언제나
우리나라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,

00:29:44.444 --> 00:29:47.870

남북 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
언제나 나오는 게

00:29:47.970 --> 00:29:49.825

72년도 7.4 남북
공동 성명이에요.

00:29:49.925 --> 00:29:52.215

이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
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.

00:29:52.315 --> 00:29:55.972

이 7.4 남북공동성명에
뭐라고 나와 있냐면

00:29:56.072 --> 00:30:00.235

우리는 민족적 대단결을
추구해야 된다.

00:30:00.335 --> 00:30:04.118

앞으로의 통일은 자주적이면서도
평화적으로도 진행해야 된다.

00:30:04.218 --> 00:30:09.552

이러한 3대 원칙을 말하게 되면서 그
이후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,

00:30:09.652 --> 00:30:11.032

남북 협상을 이야기할 때

00:30:11.132 --> 00:30:14.341

언제나 기본이 되는 게
7.4 남북공동성명이에요.

00:30:14.441 --> 00:30:21.496

7월 4일에 북한의 평양과 남한의
서울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요.

00:30:21.596 --> 00:30:25.049

이 당시 분위기를 저희
어머니한테 한번 들어보니까

00:30:25.149 --> 00:30:28.068

정말로 통일이 되는 것 같았대요.

00:30:28.168 --> 00:30:29.632

그래서 각각 이야기합니다.

00:30:29.732 --> 00:30:33.211

북한에서는 우리가 통일될 것 같은데
모든 전권을 누구한테 미뤄달라?

00:30:33.311 --> 00:30:36.920

남에서는 박정희한테 밀어주고
북에서는 김일성한테 밀어달라.

00:30:37.020 --> 00:30:41.006

이게 되면 남과 북의
의지와 힘을 가지고

00:30:41.106 --> 00:30:43.711

우리가 바로 통일을
이루어내겠다고 하게 되는데

00:30:43.811 --> 00:30:51.954

결과적으로는 7.4 남북공동성명
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 체제.

00:30:52.054 --> 00:30:57.175

남쪽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를
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30:57.275 --> 00:30:59.171

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에요.

00:30:59.271 --> 00:31:01.672

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고요.

00:31:01.772 --> 00:31:04.324

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.

00:31:04.424 --> 00:31:06.435

더 중요한 건 그
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?

00:31:06.535 --> 00:31:09.494

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데서 뽑아요.

00:31:09.594 --> 00:31:14.379

당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들이
대부분 다 선거인단이었을 테니까

00:31:14.509 --> 00:31:17.946

그냥 건강하다고만 하면
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겠죠.

00:31:18.046 --> 00:31:21.663

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
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.

00:31:21.763 --> 00:31:24.472

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
해산할 수도 있었어요.

00:31:24.572 --> 00:31:29.144

그리고 대통령이 긴급하다고 느끼는
일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로 인해서

00:31:29.244 --> 00:31:31.890
주요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
그냥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.

00:31:31.990 --> 00:31:35.142
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파
여러분, 들어보셨을 겁니다.

00:31:35.242 --> 00:31:38.648
인혁당 사건입니다,
당시에 대학생들.

00:31:38.748 --> 00:31:42.443
이 인혁당 사건은 사실 1차 인혁당
사건이 있고 2차 인혁당 사건이 있는데

00:31:42.543 --> 00:31:44.375
이거는 2차 인혁당 사건
이야기하는 것이겠죠?

00:31:46.181 --> 00:31:51.369
지금 이것도 대법원에서
다시 무죄판결이 나왔죠.

00:31:51.469 --> 00:31:54.954
사형이 내려지고 나서
몇 시간 안 돼서

00:31:55.054 --> 00:31:57.812
바로 사형집행 해버리거든요.

00:31:57.912 --> 00:32:00.904
그래서 이게 사법 역사상
가장 최악의 일로

00:32:01.004 --> 00:32:05.759
지금 국제사회에도 회자되고 있는데

00:32:05.859 --> 00:32:08.527
당시에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
가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

00:32:08.627 --> 00:32:12.754
엄청난 가혹한 행위가
들어갔던 게 이 시대입니다.

00:32:12.854 --> 00:32:15.072
그래서 이 시대를 박정희 유신체제.

00:32:15.172 --> 00:32:17.945
이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
4공화국이라고 하고요.

00:32:18.045 --> 00:32:19.304
70년대 거의 전체죠.

00:32:19.404 --> 00:32:24.017
72년부터 79년까지를

박정희 유신체제 내지는

00:32:24.117 --> 00:32:28.433

인권이 살아있지 못했다고 해서
우리가 그걸로 표현하자면

00:32:28.533 --> 00:32:33.459

겨울에 가깝다고 해서 겨울 공화국이라고
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
00:32:33.559 --> 00:32:38.408

이러한 상태에서 76년 3.1
구국 선언이 있게 됩니다.

00:32:38.508 --> 00:32:41.423

이러한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

00:32:41.523 --> 00:32:48.465

1976년도 3월 1일에
재야인사들이 모여서

00:32:48.565 --> 00:32:51.751

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를
했던 것이고요.

00:32:51.851 --> 00:32:58.081

그리고 나서 개헌 청원 100만인
서명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.

00:32:58.181 --> 00:33:02.209

이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

00:33:02.309 --> 00:33:09.335

당시에 71년 대선에 붙었던 김대중 전
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00:33:09.435 --> 00:33:13.643

일본에서 납치를 당해서 죽음의
위협을 당하기도 했었고요.

00:33:13.743 --> 00:33:18.879

그다음에 당시 박정희
유신 공화국에서

00:33:18.979 --> 00:33:25.284

아주 철저히 반대 움직임을 펼쳤던
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은

00:33:25.384 --> 00:33:29.936

포천 약사봉이라는 데서 의문사를
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.

00:33:30.036 --> 00:33:34.429

이게 바로 4공화국 과정이라고
봐주시면 되겠고요.

00:33:34.529 --> 00:33:37.270

그러다가 79년까지 이어집니다.

00:33:37.370 --> 00:33:39.418

7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

00:33:39.518 --> 00:33:44.562
경제적으로 보자면 73년도에 전
세계적으로 1차 오일쇼크가 있었어요.

00:33:44.662 --> 00:33:48.038
78년에서 79년 넘어갈 때
2차 오일쇼크가 오게 됩니다.

00:33:48.138 --> 00:33:51.838
1차 오일쇼크는 오히려 우리나라가
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봐요.

00:33:51.986 --> 00:33:55.372
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
60년대에 경공업에서

00:33:55.472 --> 00:33:59.198
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
완벽히 넘어오기 전이라서

00:33:59.298 --> 00:34:03.931
사실은 오일이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
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은 아니었습니다.

00:34:04.031 --> 00:34:06.718
그리고 무엇보다 기름값이
갑자기 오르게 되면서,

00:34:06.818 --> 00:34:12.391
석유판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서 당시에
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아랍 지역.

00:34:12.491 --> 00:34:14.271
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

00:34:14.371 --> 00:34:20.512
그 지역 일대가 훨씬 더 건설
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.

00:34:20.612 --> 00:34:24.006
SOC이라고 하죠?
사회 자본이라든가

00:34:24.106 --> 00:34:28.950
사회기간산업 같은 거를 만들게
되는데 이때 우리 건설사들.

00:34:29.050 --> 00:34:33.549
현대 건설로 대표되는 건설사들이
가서 그것을 이룩해내면서

00:34:33.649 --> 00:34:36.837
오히려 돈을, 중동붐이라고 하죠?

00:34:36.937 --> 00:34:41.943
중동특수라는 말이 70년대에 있게
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.

00:34:42.043 --> 00:34:45.658
그런데 2차 오일쇼크 때는 심각한

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.

00:34:45.758 --> 00:34:48.578

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
경제가 올스톱 되어버려요.

00:34:48.723 --> 00:34:50.844

2차 오일쇼크 때는
훨씬 더 심각했습니다.

00:34:50.944 --> 00:34:53.685

그게 YH 무역 사건으로
이어지게 되었고요.

00:34:53.785 --> 00:34:58.487

YH 무역 사건이 뭐냐면
YH라는 무역 회사가 있었어요.

00:34:58.587 --> 00:35:03.768

그 무역 회사에서 당시에 10대,
20대 초반의 여직공들.

00:35:03.868 --> 00:35:06.534

그러니까 저는 늘
그 생각을 합니다.

00:35:06.634 --> 00:35:09.754

여러분, 역사 앞에서 감사하십니까?

00:35:09.854 --> 00:35:11.172

전 감사해요.

00:35:11.272 --> 00:35:13.169

전 정말로 감사합니다, 왜요?

00:35:13.269 --> 00:35:14.934

선생님은 선생님 됐기
때문에 감사하죠.

00:35:15.034 --> 00:35:16.458

사실 그것도 있죠.

00:35:16.558 --> 00:35:22.278

제가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는데 저는 나름의
제 꿈을 이뤘고

00:35:22.378 --> 00:35:25.787

또 이렇게 강남 인강에서 여러분도
만나고 또 다른 외부 활동도 하고

00:35:25.887 --> 00:35:30.466

가끔은 해외에서 불러줘서
한국사 수업도 하거든요.

00:35:30.628 --> 00:35:32.855

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나 감사해요.

00:35:32.955 --> 00:35:37.847

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하는
제가 어떻게 이걸 감사해 해요?

00:35:37.947 --> 00:35:40.351

입시지옥이라는 이 대한민국의
고등학생으로서

00:35:40.451 --> 00:35:42.031

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감사하다고요?

00:35:42.131 --> 00:35:43.696

감사하셔야 돼요.

00:35:43.796 --> 00:35:46.874

여러분이 몇 년생이죠?

00:35:46.974 --> 00:35:49.669

2001년생, 2002년생
정도 됩니까?

00:35:49.769 --> 00:35:52.189

여러분이 30년 전에 태어났다면
뭐 했을 것 같아요?

00:35:52.289 --> 00:35:53.946

40년 전이었다면?

00:35:54.046 --> 00:35:56.515

이때 여러분이 지금 나이였다면
뭐했을 것 같아요?

00:35:56.615 --> 00:35:58.515

공부? 턱도 없는
소리 하지 마십시오.

00:35:58.615 --> 00:35:59.873

여러분, 뭐했을 것 같습니까?

00:35:59.973 --> 00:36:03.097

하루 15시간 씩
미싱 돌렸을 겁니다.

00:36:03.197 --> 00:36:04.885

당시에는 바꿀 수
있는 게 없었어요.

00:36:04.985 --> 00:36:07.768

내가 그게 아니면 내
가족들이 밥을 굶어.

00:36:07.868 --> 00:36:11.708

그 시대에 판잣집 지어 사는데
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.

00:36:11.808 --> 00:36:13.279

그러니까 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

00:36:13.379 --> 00:36:18.306

10대 여고생들, 여중생들이
그냥 미싱 박는 거예요.

00:36:18.433 --> 00:36:23.671

그게 저희 어머니 세대고
여러분, 할머니 세대예요.

00:36:23.771 --> 00:36:27.632

불과 1, 2세대 차이로
여러분은 그분들이

00:36:27.790 --> 00:36:30.777

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시는
뭐하고 계시는 겁니까?

00:36:30.877 --> 00:36:32.200

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.

00:36:32.300 --> 00:36:35.126

저희 어머니가 올해 75세이십니다.

00:36:35.226 --> 00:36:37.708

그런데 올해 뭐하시는지 아세요?

00:36:37.808 --> 00:36:41.246

학교 입학하셨어요, 중학교.

00:36:41.346 --> 00:36:44.522

제가 그래서 지난주에
어머니랑 저희 누나,

00:36:44.622 --> 00:36:52.281

제 아내랑 같이 입학 기념으로
잠깐 홍콩 갔다 왔거든요.

00:36:52.381 --> 00:36:54.881

너무 좋더라고.

00:36:54.981 --> 00:36:59.310

사실 홍콩 그렇게 저는 기대했던 것도
없고 크게 볼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.

00:36:59.410 --> 00:37:03.424

그렇지만 어머니 모시고 해외를 한 번
나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.

00:37:03.524 --> 00:37:09.198

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.

00:37:09.298 --> 00:37:13.457

그리고 저희 어머니가
늘 말씀하셨거든요.

00:37:14.677 --> 00:37:16.162

요새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.

00:37:16.262 --> 00:37:19.462

우리 때는 부모님 직업, 나이.

00:37:19.589 --> 00:37:23.309

이렇게 쓰고
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하죠?

00:37:23.409 --> 00:37:25.754

그러고 나서
최종학력 쓰라고 해요.

00:37:25.854 --> 00:37:33.338

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
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셨더라고요.

00:37:33.438 --> 00:37:35.485

그런데 언제나 중졸,
중졸 났거든요.

00:37:35.637 --> 00:37:38.515

쓰면서도 뭔가 부모님들
표정이 애매했었어.

00:37:38.615 --> 00:37:41.750

그러니까 자식들 창피하지
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

00:37:41.850 --> 00:37:44.321

그런데 제가 성인이
되고 교사가 되고 나서

00:37:44.421 --> 00:37:46.523

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
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.

00:37:46.623 --> 00:37:48.623

성완아 나 공부 좀 시켜줘라.

00:37:48.723 --> 00:37:50.371

공부를 더 하시게요? 그랬더니

00:37:50.471 --> 00:37:52.651

나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 못
했다, 라고 하시는 거예요.

00:37:52.751 --> 00:37:54.313

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글씨도 쓰셨고

00:37:54.413 --> 00:37:58.940

나름 머리는 되게 좋으신
분이었는데 기회가 안 되셨죠.

00:37:59.040 --> 00:38:02.108

전에 하신 말씀으로는 초등학교
2학년 다니고 있었는데

00:38:02.208 --> 00:38:04.322

그때 작은 외삼촌이 나무에서
떨어지는 것 때문에

00:38:04.422 --> 00:38:06.654

병수발을 하느라고
학교를 못 가셨대요.

00:38:06.792 --> 00:38:09.625

그게 지금 60대까지
이어지셨던 거예요.

00:38:09.725 --> 00:38:14.604

그리고 나서 10년 전에
공부하시다가, 한 8년 정도 됐죠?

00:38:14.728 --> 00:38:17.383

초등학교 자격 검정고시를
통과하셨어요.

00:38:17.483 --> 00:38:19.933

바로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
제 조카들이 태어납니다.

00:38:20.033 --> 00:38:23.876

조카들을 6, 7년 정도
키워주시느라고 잠깐 쉬고 계시다가

00:38:23.976 --> 00:38:26.564

난 그 정도 됐으면 안
다니신다고 할 줄 알았거든.

00:38:26.664 --> 00:38:29.345

그런데 작년 말에
다시 선언하시더라고요.

00:38:29.445 --> 00:38:34.381

이제 애들 클 만큼 컸고 내
공부하고 싶다, 70대 중반에.

00:38:34.481 --> 00:38:36.121

평생에 한이 되셨던 거야.

00:38:36.221 --> 00:38:39.277

자긴 학교라는 데를 그렇게
다녀보고 싶대요.

00:38:39.377 --> 00:38:41.690

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꿈은
학교 다니는 거였어요.

00:38:41.790 --> 00:38:43.083

여러분은 어떻습니까?

00:38:43.183 --> 00:38:45.920

학교 다니는 거 좋으세요?
좋아하셔야 돼요.

00:38:46.020 --> 00:38:49.026

왜? 누군가에게는 평생의
꿈이 여러분에게는

00:38:49.126 --> 00:38:55.433

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
것일 수도 있으니까요.

00:38:55.533 --> 00:38:56.498

감사하셔야 됩니다.

00:38:56.598 --> 00:39:00.791

이 당시에 이 여직공들이 몇 날
며칠 일을 하게 되는데요.

00:39:00.891 --> 00:39:04.008

사장이라는 놈이 고의부도를
내버린 거야.

00:39:04.108 --> 00:39:06.351

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한테
돈 안 주려고.

00:39:06.451 --> 00:39:08.968

월급을 4개월, 5개월
한 반년 가까이 밀어놓고

00:39:09.068 --> 00:39:11.525

월급 안 주고 있다가 그냥
해외로 도망가버린 거야.

00:39:11.625 --> 00:39:14.787

그러니까 여기에 있는
노동자들이 뭐가 잘못이에요?

00:39:14.887 --> 00:39:17.282

그래서 시위를 하는데 당시
경찰들이 이런 시위 하면

00:39:17.382 --> 00:39:19.293

엄청나게 가혹하게 탄압하거든요.

00:39:19.393 --> 00:39:23.616

그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
신민당 당사로 들어갑니다.

00:39:23.716 --> 00:39:26.342

그러니까 여러분, 당사
들어가면 현행법상

00:39:26.442 --> 00:39:29.120

경찰이 잡아갈 수
있습니까, 없습니까?

00:39:29.220 --> 00:39:30.491

잡아갈 수 있습니다.

00:39:30.591 --> 00:39:33.309

그렇지만 안 잡아가는 거예요, 왜?

00:39:33.409 --> 00:39:36.339

정치적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
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

00:39:36.439 --> 00:39:38.337

이런 거예요.

00:39:38.437 --> 00:39:40.030

저희가 몇 년 전에도 있었죠?

00:39:40.130 --> 00:39:45.433

당시에 민주노총 같은 데서
시위하다가 조계사로 들어갔잖아요.

00:39:45.533 --> 00:39:46.783

사찰로 들어갑니다.

00:39:46.883 --> 00:39:48.757

현행법상 잡아갈 수
있습니까, 없습니까?

00:39:48.857 --> 00:39:50.622

문제 될 거 없어요.

00:39:50.722 --> 00:39:53.141

그렇지만 안 잡아가는 거죠.
왜?

00:39:53.241 --> 00:39:56.881

종교에 대한 권리를
인정해주는 거거든요.

00:39:56.981 --> 00:40:00.574

우리가 예전에 민주화 운동
하다가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

00:40:00.674 --> 00:40:03.975

사찰을 갔을 때 안 잡아간 이유가
사실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.

00:40:04.075 --> 00:40:05.114

이것도 마찬가지였겠죠.

00:40:05.214 --> 00:40:07.954

그런데 이때는 유신 시대잖아요.

00:40:08.082 --> 00:40:13.465

민주당 당사 들어가서 당시에
민주당 당수가 김영삼이었는데

00:40:13.565 --> 00:40:17.086

김영삼이 우리랑 같이
시위하자, 라고 했는데

00:40:17.186 --> 00:40:21.710

그다음 날 바로 경찰이 습격해서
직공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.

00:40:21.810 --> 00:40:25.662

그러자 당시 당수였던 김영삼이
외신기자들 앞에다 놓고

00:40:25.762 --> 00:40:28.264

지금의 이 정권은 살인 정권입니다.

00:40:28.364 --> 00:40:30.751

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.

00:40:30.851 --> 00:40:33.294

그게 화가 났나 봐요.
여기에 있죠?

00:40:33.394 --> 00:40:38.719

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
1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

00:40:38.819 --> 00:40:43.153

말 한마디로 바로
제명할 수도 있거든요.

00:40:43.253 --> 00:40:46.994

당시에 유력 정치인이었던
김영삼에 대해서

00:40:47.138 --> 00:40:50.524

너 국회의원 아니야!
라고 제명을 해버려요.

00:40:50.624 --> 00:40:56.466

그러자 부산, 마산 일대.
김영삼의 정치적인 힘이 센 지역이죠?

00:40:56.566 --> 00:40:58.036

그 지역에서 항쟁이
일어나게 됩니다.

00:40:58.136 --> 00:41:00.340

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
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고

00:41:00.440 --> 00:41:07.731

이 부마항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
10·26 사태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41:07.831 --> 00:41:14.590

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
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

00:41:14.720 --> 00:41:21.638

당시 유신의 핵심이었던 박정희가
안가에서 사망한 사건.

00:41:21.738 --> 00:41:25.069

이게 바로 10·26 사태입니다.

00:41:25.169 --> 00:41:31.399

10·26 사태와 관련돼서 여러분,
참 재미있는 영화 중에서는

00:41:31.499 --> 00:41:36.477

그때 그 사람들, 이라는
영화가 있습니다.

00:41:36.577 --> 00:41:41.013

중앙정보부장으로 백윤식 씨가
나와서 열현을 했던 영화인데요.

00:41:41.113 --> 00:41:44.978

사실은 이 10·26사태도
조금은 애매합니다.

00:41:45.078 --> 00:41:50.901

왜 그러냐면 김재규의 그런
행적이 너무 말이 안 맞아.

00:41:51.001 --> 00:41:55.222

그러니까 준비했다고
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

00:41:55.322 --> 00:41:59.437

또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
약간은 치밀한 점이 있는.

00:41:59.537 --> 00:42:02.851

바로 그런 게 10·26

사건이었어요.

00:42:02.951 --> 00:42:11.055

이 혼란의 항상 과정 가운데 당시에
박정희가 군내에서 키우고 있었던 세력.

00:42:11.155 --> 00:42:12.818

하나회 세력이라고 하거든요.

00:42:12.918 --> 00:42:15.092

전두환, 노태우,
정호영으로 대표되는

00:42:15.192 --> 00:42:18.292

이런 신군부 세력들이
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.

00:42:18.392 --> 00:42:24.489

우리가 그것을 12.12 사태라고 하고
이때 등장했던 이들을 신군부라고 하죠.

00:42:24.589 --> 00:42:26.463

이게 12.12 사태입니다.

00:42:26.563 --> 00:42:30.356

그리고 나서 유신 체제
한번 보겠습니다.

00:42:30.456 --> 00:42:33.128

유신 체제의 내용을 한번
보시면 제39조입니다.

00:42:33.228 --> 00:42:39.542

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
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.

00:42:39.642 --> 00:42:41.626

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
국회 의원 정수의

00:42:41.726 --> 00:42:44.527

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
국회의원을 선거한다.

00:42:44.627 --> 00:42:49.815

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
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

00:42:49.915 --> 00:42:53.883

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
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

00:42:53.983 --> 00:42:56.799

내정, 외교, 국방,
경제, 재정, 사법 등

00:42:56.899 --> 00:43:02.078

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

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.

00:43:02.178 --> 00:43:07.266
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
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

00:43:11.229 --> 00:43:12.866
긴급 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43:12.966 --> 00:43:17.778
긴급 조치가 1호, 2호, 3호 하면서
9호까지인가로 내려오게 되거든요.

00:43:17.878 --> 00:43:19.830
보시면 긴급 조치 1호입니다.

00:43:19.930 --> 00:43:23.509
대한민국 헌법을 부정, 반대, 왜곡
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.

00:43:23.609 --> 00:43:26.521
대한민국 헌법의 개정
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,

00:43:26.621 --> 00:43:29.353
제안 또는 청원하는
일체의 행위를 금한다.

00:43:29.453 --> 00:43:30.529
이게 뭐예요?

00:43:30.629 --> 00:43:33.921
대한민국 헌법은 언제든지
국민이 만든 거니까

00:43:34.021 --> 00:43:36.011
잘못될 경우 개정을
요구할 수 있죠?

00:43:36.111 --> 00:43:36.871
요구할 수 있습니다.

00:43:36.971 --> 00:43:38.604
이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.

00:43:38.704 --> 00:43:42.987
그리고 또 개정 또는 폐지를
주장하는 행위를 금한다.

00:43:43.087 --> 00:43:46.759
유언비어를 날조, 유포하는
일체의 행위를 금한다.

00:43:46.859 --> 00:43:51.311
위의 1, 2, 3호에서 금한
행위를 권유, 선동, 선전하거나

00:43:51.411 --> 00:43:56.460
방송, 보도, 출판,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
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.

00:43:56.560 --> 00:43:59.285

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와
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

00:43:59.385 --> 00:44:06.955

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, 구속, 압수
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00:44:07.055 --> 00:44:12.293

이거 헌법 좀 문제 있는 거
같지 않냐? 15년.

00:44:12.393 --> 00:44:16.586

이런 시대가 불과 40년
전에 있었습니다, 여러분.

00:44:16.686 --> 00:44:18.638

이런 시대가 있었다고요.

00:44:18.738 --> 00:44:23.129

그래서 일베 친구들,
정신 차리십시오.

00:44:23.229 --> 00:44:29.694

저는 사실 일베에 대해서 말을
더 길게 하고 싶지 않지만

00:44:29.794 --> 00:44:32.314

정말로 왜곡된 정보나 이런 것들로

00:44:32.414 --> 00:44:35.163

오히려 이런 시대를 좋아하는
사람들도 있더라고요.

00:44:35.263 --> 00:44:36.862

여러분이 그런 시대에
없어서 그렇습니다.

00:44:36.962 --> 00:44:41.908

그런 시대 있었으면 그런 말도 할 수
없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.

00:44:42.008 --> 00:44:44.487

어쨌든 신군부 세력이 들어왔습니다.

00:44:44.587 --> 00:44:49.701

신군부 세력이 들어오면서
자리를 잡게 되었고요.

00:44:49.801 --> 00:44:52.078

그때쯤 되면서 이제는
겨울이 끝났다.

00:44:52.178 --> 00:44:57.792

겨울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봄이 올 거야,
라고 했던 게 1980년의 상태였어요.

00:44:57.892 --> 00:44:59.673

이게 바로 그 유명한
서울의 봄입니다.

00:44:59.773 --> 00:45:05.368
이젠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 인권이
싸울 피우는 봄이 왔다고 하게 되면서

00:45:05.468 --> 00:45:08.874
당시에 전국의 대학생들이
서울로 모여들게 됩니다.

00:45:08.974 --> 00:45:11.217
그래서 그때 나왔던
말이 서울의 봄이에요.

00:45:11.317 --> 00:45:13.207
겨울이 끝났으니까 봄이 왔다,

00:45:13.307 --> 00:45:15.606
서울에서 우리가 봄을
맞이하자, 라고 하게 되면서

00:45:15.706 --> 00:45:18.356
아직까지는 헌법이 남아 있었거든요.

00:45:18.456 --> 00:45:22.218
유신 철폐하고 신군부퇴진을
요구하게 됩니다.

00:45:22.318 --> 00:45:28.926
그런 상태에서 대학생 그룹은
해산되게 되었고요.

00:45:29.026 --> 00:45:32.322
신군부가 계엄령을
확대해나가게 됩니다.

00:45:32.422 --> 00:45:35.890
그래서 당시 신군부는 어느
지역이든 때렸어야만 하는 거예요.

00:45:35.990 --> 00:45:39.852
이거에 대해서 왜 광주였냐에
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

00:45:39.952 --> 00:45:41.172
여러 가지 설이 있죠.

00:45:41.272 --> 00:45:46.559
당시에 전두환, 노태우, 정호영
일대가 다 경북 정권.

00:45:46.705 --> 00:45:48.629
TK 지역이라고 우리가
흔히 이야기하죠?

00:45:48.729 --> 00:45:51.613
그 지역이었기 때문에
경상도보다는 다른 지역.

00:45:51.713 --> 00:45:53.892
그다음에는 서울과 어느
정도 떨어지게 되면서

00:45:53.992 --> 00:45:56.586

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
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

00:45:56.686 --> 00:46:01.080

대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기도
하고 인천은 서울이랑 더 가깝고.

00:46:01.180 --> 00:46:02.796

그리고 해외에 알리지 않으면서

00:46:02.896 --> 00:46:06.126

뭔가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
있는 지역이 남아있던

00:46:06.226 --> 00:46:09.229

광주가 아니었겠냐라고
추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

00:46:12.441 --> 00:46:15.040

광주에서도 지금의 정부 물러나라,

00:46:15.140 --> 00:46:18.601

신군부 물러나라고 하는
많은 시위가 나왔겠죠?

00:46:18.701 --> 00:46:20.240

그런데 여러분, 말이 안 돼요.

00:46:20.340 --> 00:46:24.184

군대는 원래 어디에 보내야 되는 겁니까?
외국군.

00:46:24.284 --> 00:46:27.027

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
위해서 있는 게 군대죠.

00:46:27.127 --> 00:46:37.579

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
특공부대가 광주시민군을 탄압합니다.

00:46:37.679 --> 00:46:41.954

이게 바로 시민군과
계엄군, 폭력적 진압.

00:46:42.095 --> 00:46:49.230

아마 이것은 여러분, 택시운전사라는
영화에서 잘 알려질 겁니다.

00:46:49.330 --> 00:46:52.095

사실 전 개인적으로 너무
기대를 해서 그런지

00:46:52.195 --> 00:46:56.596

기대치보다는 조금
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

00:46:56.696 --> 00:47:01.553

그런데 이 5.18 민주화
운동은 영화화가 많이 됐죠?

00:47:01.653 --> 00:47:05.941

지금 제가 대충 기억나는
것만 해도 모래시계.

00:47:06.971 --> 00:47:09.928

여러분, 이건 진짜
최고의 드라마입니다.

00:47:10.028 --> 00:47:14.545

기회가 되신다면 꼭
한번 보셨으면 좋겠고

00:47:14.645 --> 00:47:21.784

최민수 씨의 '나 지금 떨고 있니?'
라는 유명한 대사로 알려져 있고요.

00:47:21.884 --> 00:47:26.164

그다음에 최근에는
26년이라는 영화도

00:47:26.264 --> 00:47:31.214

이 5.18 민주화 운동과
관련돼서 나오고요.

00:47:31.314 --> 00:47:36.187

그다음에 택시운전사도 있었고

00:47:37.126 --> 00:47:45.182

이요원 씨가 나왔었던 화려한 휴가라는
영화에서도 이 당시의 폭력적 진압.

00:47:45.282 --> 00:47:47.772

사실 여러분, 정말로
아이러니한 건

00:47:47.872 --> 00:47:51.062

이제 벌써 한 40년 가까이
지나지 않았습니까?

00:47:51.162 --> 00:47:58.917

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
발포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.

00:47:59.017 --> 00:48:01.290

참 어이없는 상태입니다.

00:48:02.857 --> 00:48:05.799

선생님,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뭐가
그렇게 대단한 겁니까, 라고

00:48:05.899 --> 00:48:08.036

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

00:48:08.136 --> 00:48:09.175

전 그렇게 이야기해줍니다.

00:48:09.275 --> 00:48:13.782

이때 잘못됐던 걸 잘못됐다고
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

00:48:13.882 --> 00:48:21.126

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민주주의가
꽃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
00:48:21.226 --> 00:48:23.082
또 그게 맞습니다.

00:48:23.182 --> 00:48:30.302
그래서 이 5.18 광주 민주화
운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러기보다

00:48:30.402 --> 00:48:33.356
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
게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

00:48:33.456 --> 00:48:36.438
이것으로 인해서
국가보상비상대책위원회.

00:48:36.538 --> 00:48:39.483
이걸 우리가 줄여서
국보위라고 하거든요.

00:48:39.583 --> 00:48:45.794
당시 이 국보위 당시
12.12사태의 핵심이었던

00:48:45.894 --> 00:48:49.092
전두환이 여기 오르게 되면서 그
이후 대통령으로 가게 되죠.

00:48:49.192 --> 00:48:50.790
그래서 이 용어 기억해두세요.

00:48:50.890 --> 00:48:53.588
국가재건최고회의는
61년에서 63년.

00:48:53.688 --> 00:48:56.070
그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
유신정권 때.

00:48:56.170 --> 00:48:58.797
그다음에
광주 5.18 운동이 있었던

00:48:59.005 --> 00:49:01.883
1980년대쯤에 나왔던
게 국보위입니다.

00:49:01.983 --> 00:49:03.642
이거 좀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49:03.742 --> 00:49:08.125
그리고 나서 80년부터
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.

00:49:08.225 --> 00:49:10.762
11대, 12대 대통령이 되는데요.

00:49:10.862 --> 00:49:11.411
이런 거예요.

00:49:11.511 --> 00:49:14.998

강압적 정책도 있었고 유화적
정책도 있었습니다.

00:49:15.098 --> 00:49:17.876

강압적 정책은 대표적인
게 언론과 관련돼서.

00:49:17.976 --> 00:49:19.998

이때는 유명한 게 땡전 뉴스예요.

00:49:20.098 --> 00:49:20.938

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.

00:49:21.038 --> 00:49:23.500

80년대 때는
제가 꼬마 시절이었는데

00:49:23.600 --> 00:49:28.356

그때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.

00:49:28.456 --> 00:49:32.698

KBS1, KBS2,
MBC밖에 없었습니다.

00:49:32.798 --> 00:49:35.948

KBS2에서는 9시 뉴스를 안 했고

00:49:36.048 --> 00:49:41.445

보통 9시 뉴스를 하는 게
MBC랑 KBS1이었습니다.

00:49:41.545 --> 00:49:45.863

거기서 보시면 삼성시계 로가디스,
로가디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.

00:49:45.963 --> 00:49:50.992

띠 띠 띠 땡! 하면서 앵커가 딱
나와서 뉴스를 하는 거거든요.

00:49:51.092 --> 00:49:53.385

그러니까 땡 하면
바로 첫 번째 뉴스가

00:49:53.485 --> 00:49:56.792

8년 내내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...
이었어요.

00:49:56.892 --> 00:50:00.867

그래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,
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.

00:50:00.967 --> 00:50:03.956

이게 그래서 이때 나왔던 유명한
용어가 땡전 뉴스입니다.

00:50:04.056 --> 00:50:06.580

땡 하면 전두환 뉴스가 제일
먼저 나온다, 땡전 뉴스.

00:50:06.680 --> 00:50:08.154

그다음에 보도지침이라고 해서

00:50:08.254 --> 00:50:12.478

언론사별로 무엇을 보도할지 말아야
할지에 대해서 지침이 다 내려왔었어요.

00:50:12.578 --> 00:50:17.868

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던 당시
그 사람들은 삼청교육대.

00:50:17.968 --> 00:50:28.764

사실 삼청교육대 때는 원래 누구를
소탕하려고 했었냐면 폭력배들.

00:50:28.864 --> 00:50:31.705

이게 1차 때는 사실 거의
폭력배들만 잡아갔대요.

00:50:31.805 --> 00:50:34.661

그래서 강패들 없고 하니까
너무 좋다고 했었는데

00:50:34.761 --> 00:50:38.426

이게 반응이 좋으니까
2차, 3차, 4차 계속 가다가

00:50:38.526 --> 00:50:42.554

이제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
막 잡아가는 거야.

00:50:42.654 --> 00:50:44.254

동네 애들 학교 보내고

00:50:44.354 --> 00:50:46.725

어머니들이 10원짜리
화투 치고 있었는데

00:50:46.825 --> 00:50:49.131

주부도박단이라고 해서 잡아가고요.

00:50:49.231 --> 00:50:54.261

길거리에서 누워 잠자고
있었는데 그냥 잡아가고

00:50:54.361 --> 00:50:55.780

별의별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.

00:50:55.880 --> 00:50:58.313

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배경으로

00:50:58.413 --> 00:51:00.260

제일 잘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

00:51:00.360 --> 00:51:03.602

과거 MBC에서 만들었던
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

00:51:03.702 --> 00:51:05.574

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

00:51:05.674 --> 00:51:08.907

그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
보면 이 삼청교육대가 나와요.

00:51:09.007 --> 00:51:13.104

거기 뭐라고 나오냐면, 이게 팩트에
기반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요.

00:51:13.204 --> 00:51:18.932

학교별로 문제 학생 한 명씩을
삼청교육대에 보내라고 합니다.

00:51:19.032 --> 00:51:20.419

지금도 기억나요.

00:51:20.519 --> 00:51:25.816

그 드라마에서 교감 선생님이 그
공문을 보더니 벌벌 떨어.

00:51:25.916 --> 00:51:28.262

김 선생, 이리 와봐,
이거...

00:51:28.362 --> 00:51:32.824

이게 말이 됩니까?
어떻게 우리 제자들을 여기에 보내요? 라고 하자

00:51:32.924 --> 00:51:35.840

이거 안 보내면 너나
내가 가야 돼.

00:51:35.940 --> 00:51:37.975

그러고 나서 그 멘트가
너무 슬펐어요.

00:51:38.075 --> 00:51:42.229

뭐라고 하나면 부모님
안 계신 애들로,

00:51:42.329 --> 00:51:45.272

부모님들이 문제 안 삼을만한
애들로 한번 찾아봐.

00:51:45.372 --> 00:51:46.560

학교 오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,

00:51:46.660 --> 00:51:49.800

잘 꼬셔서 보내면 되지,
라고 이야기를 하니까

00:51:49.900 --> 00:51:56.151

그 선생님이 한숨 쉬면서
술을 막 들이켜는데.

00:51:56.251 --> 00:51:59.146

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
오랜만에 학교 나온 애를 불러요.

00:51:59.246 --> 00:52:02.506

너 이놈아, 오랜만이다? 그러니까
학교 오기 싫은데요?

00:52:02.606 --> 00:52:04.289

너 학교 오기 그렇게 싫으냐?

00:52:04.389 --> 00:52:11.783

그러면 내가 졸업은 시켜줄 테니까
어디 저기 가서 기술도 배우고

00:52:11.883 --> 00:52:14.522

밥도 주고 한다니까 거기 좀
갔다 올래? 하니까

00:52:14.661 --> 00:52:17.829

그래요? 졸업장도 준다고요?
기술도 배우게 해줘요?

00:52:17.929 --> 00:52:19.946

그래, 그런다니까.

00:52:20.046 --> 00:52:23.660

콜, 좋아요!
이렇게 이야기한 거죠.

00:52:23.760 --> 00:52:27.357

그런데 부모님은 요즘에도
안 들어오시니?

00:52:27.457 --> 00:52:28.881

네, 안 들어와요.
그냥 할머니랑 사는데

00:52:28.981 --> 00:52:33.390

할머니도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집에
잘 안 들어가요, 라고 하죠.

00:52:33.490 --> 00:52:39.170

그리고 나서 또 그 선생님이
그날 저녁에 술을 마셔요.

00:52:40.383 --> 00:52:49.889

먹다가 교감 선생님한테,
학생을 보낸다는 명부겠죠?

00:52:49.989 --> 00:52:53.604

그 서류와 함께 그 안에
본인의 사직서.

00:52:53.704 --> 00:52:55.720

그러니까 제자를 팔아먹은 선생으로서

00:52:55.820 --> 00:53:00.433

더 이상 나는 선생이 아니다, 라고
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

00:53:00.533 --> 00:53:05.839

그래서 거기 밑에 자신의 사직서를
넣고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죠.

00:53:05.939 --> 00:53:10.511

그래서 그걸 받아든 교감 선생님이 그
학생 명부랑 함께 사직서를 딱 보고

00:53:10.611 --> 00:53:15.499

김 선생! 이렇게 부르는 장면.

00:53:15.599 --> 00:53:22.057

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
같았던 바로 그 삼청교육대.

00:53:22.157 --> 00:53:26.544

이걸 뭐 지금의 서울교육대학교,
경인교육대학교,

00:53:26.644 --> 00:53:29.483

춘천교육대학교랑 이런 데랑
헛갈리시면 안 돼요.

00:53:29.583 --> 00:53:32.003

거긴 초등학교 선생님
만드는 그런 교육대고요.

00:53:32.103 --> 00:53:36.039

이거는 가면, 이때 죽어
나온 사람도 수백이고요.

00:53:36.139 --> 00:53:39.575

가서 장애를 입고 나온
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

00:53:39.675 --> 00:53:41.960

정말로 말이 안 됐던 거였고요.

00:53:42.060 --> 00:53:45.614

유화적 정책으로는 이 당시 유신 시대 때는
야간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.

00:53:45.714 --> 00:53:47.681

저녁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
다닐 수 없었는데

00:53:47.781 --> 00:53:49.863

야간통행금지 폐지시켜버려요.

00:53:49.963 --> 00:53:53.557

이때부터 홍대 문화의
시작점이 나오게 되었고요.

00:53:53.657 --> 00:53:55.244

그다음에 두발, 교복 자유화.

00:53:55.344 --> 00:54:00.058

아마 여기의 상황으로 본다면
혹시 써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?

00:54:00.158 --> 00:54:02.632

거기 보시면 학생들이
교복을 안 입고 나오죠.

00:54:02.732 --> 00:54:05.630

그게 바로 이 두발과 교복 자유화.

00:54:05.730 --> 00:54:07.524

그다음에 해외여행
자유화가 이때부터.

00:54:07.624 --> 00:54:09.456

그러니까 유화정책도
있었던 것이겠죠?

00:54:09.556 --> 00:54:13.550

그리고 80년대 중반쯤
되면서 삼저호황이라고 해서

00:54:13.650 --> 00:54:16.733

금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고
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서

00:54:16.833 --> 00:54:19.648

우리나라 경제가 나름
괜찮게 돌아가게 됩니다.

00:54:19.748 --> 00:54:22.168

그래서 중산층이라는
게 성장하게 되었고

00:54:22.268 --> 00:54:24.949

이런 중산층이 결과적으로
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?

00:54:25.049 --> 00:54:27.149

정치적 자유까지 요구하게
되었던 것이죠.

00:54:27.249 --> 00:54:32.376

이게 그래서 1987이라는 영화로
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.

00:54:32.476 --> 00:54:34.321

제가 여러분, 참 고민인데요.

00:54:34.421 --> 00:54:38.509

최근에 너무 바빠서 아직
1987을 못 봤습니다.

00:54:38.609 --> 00:54:40.436

이번 주에 보겠습니다, 약속합니다.

00:54:40.536 --> 00:54:44.461

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을
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

00:54:44.561 --> 00:54:46.707

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.

00:54:46.807 --> 00:54:54.515

김태리라는 배우랑,
이한열이 누구로 나온다고 했지?

00:54:54.615 --> 00:54:56.526

강동원 씨로 나온다면서요?

00:54:56.626 --> 00:55:00.864

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이 수업을 했으면

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.

00:55:00.964 --> 00:55:04.988

지난주에도 바빴고 그 전에도
스케줄이 많고 해서.

00:55:05.088 --> 00:55:08.260

몇 번을 보려고 했는데
여유가 안 되더라고요.

00:55:08.360 --> 00:55:10.195

제가 이번 주에는 꼭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5:10.295 --> 00:55:14.202

어쨌든 여러분도 꼭 같이 1987이라는
영화 보셨으면 좋겠고요.

00:55:14.302 --> 00:55:17.724

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만
설명을 드리면 87년도.

00:55:17.824 --> 00:55:19.354

이때쯤 되면서 민주화 요구가

00:55:19.454 --> 00:55:22.768

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
막 일어날 때였습니다.

00:55:22.868 --> 00:55:26.563

당시에 서울대학교 어느
학과의 재학 중이었던

00:55:26.663 --> 00:55:29.997

박종철이 자신의 잘못으로
온 게 아니에요.

00:55:30.097 --> 00:55:39.774

자신이 알고 지내는 대학서클의 선배의
행적을 묻기 위해서 경찰이 잡아갑니다.

00:55:39.874 --> 00:55:45.672

여러분, 이때는 잡아가면
그냥 끝나는 거예요.

00:55:45.772 --> 00:55:50.687

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박종철이
죽음으로 나오게 되죠.

00:55:50.787 --> 00:55:53.665

어떻게 멀쩡하던
20대 초반의 대학생이

00:55:53.765 --> 00:55:57.326

갑자기 그렇게 죽음을
맞이하게 됐습니까? 라고 기자들이 묻자

00:55:57.426 --> 00:55:59.552

당시에 경찰, 치안감이죠?

00:55:59.652 --> 00:56:06.876

딱 나오더니 "그냥 딱 하고 치니
앉아 있던 그 학생이

00:56:06.976 --> 00:56:09.937
억, 하고 죽었습니다."
하고 나가버려요.

00:56:10.037 --> 00:56:13.166
이게 뭐야? 그 학생이 딱
쳤더니 억하고 죽었대.

00:56:13.266 --> 00:56:17.072
이게 그 유명한 딱억 사건입니다.

00:56:18.642 --> 00:56:21.486
물론 과정이야
여러 가지가 있었고

00:56:21.604 --> 00:56:25.585
특히 이게 문제가 되니까
당시 고문을 했었던.

00:56:25.685 --> 00:56:29.076
부검으로서 물고문이었다는
게 밝혀지게 되었고

00:56:29.176 --> 00:56:34.386
이것이 당시 우리 추기경이었던

00:56:34.486 --> 00:56:37.838
김수환이 명동 성당 미사 때

00:56:37.938 --> 00:56:40.632
더 알려지게 되면서
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요.

00:56:40.732 --> 00:56:45.716
이러면서 당시에 호헌철폐! 독재 타도!
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었죠.

00:56:45.816 --> 00:56:49.746
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호헌이라는
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

00:56:49.846 --> 00:56:52.902
당시에 민주화 요구가
너무 많이 나오게 되자

00:56:53.002 --> 00:56:57.257
4월 13일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,
보호하겠다고는 조치를 한 거예요.

00:56:57.357 --> 00:57:00.354
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을 우리
손으로 직접 뽑게 해달라는

00:57:00.454 --> 00:57:03.252
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있었는데
No, 웃기지 마.

00:57:03.352 --> 00:57:07.986

간선제 유지할 거야,
이 말이 호헌이에요.

00:57:08.086 --> 00:57:12.270
이렇게 되자 전국적으로 뭐합니까?
호헌철폐!

00:57:12.370 --> 00:57:16.733
이걸 철폐하고 독재 타도하자.
전두환 물러나라.

00:57:16.833 --> 00:57:20.091
호헌철폐! 독재 타도!
이게 이때 나왔던 구호입니다.

00:57:20.191 --> 00:57:21.804
이때 그 시위 과정 가운데

00:57:21.904 --> 00:57:26.316
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
사고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

00:57:26.416 --> 00:57:28.714
그 이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.

00:57:28.814 --> 00:57:34.252
그러고 나서 6.10
국민대회가 있게 되면서

00:57:34.352 --> 00:57:36.567
이게 6.29 선언으로
이어지게 됩니다.

00:57:36.667 --> 00:57:37.812
6.29 선언이라는 게 뭐니까?

00:57:37.912 --> 00:57:41.079
당시에 여당의 대표였던
노태우가 나와서

00:57:41.179 --> 00:57:47.993
6월 29일에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
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는 게

00:57:48.093 --> 00:57:50.928
즉 직선제 개헌 요구를
받아들인다는 거죠.

00:57:51.028 --> 00:57:53.162
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.

00:57:53.262 --> 00:57:54.767
이게 87년도 6월 민주항쟁.

00:57:54.867 --> 00:57:59.357
지금의 1987이라는 게 바로 1987년도에
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.

00:57:59.457 --> 00:58:00.836
그런 게 있습니다.

00:58:00.936 --> 00:58:02.576

여러분, 우리가 4.19 혁명을

00:58:02.676 --> 00:58:04.994

1960년에 너무나 완벽하게

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?

00:58:05.094 --> 00:58:08.427

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죠?

00:58:08.527 --> 00:58:11.236

박정희의 군부정권이

등장하지 않았습니까?

00:58:11.336 --> 00:58:12.470

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58:12.570 --> 00:58:17.163

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정말로

완벽한 성공을 거뒀더라면

00:58:17.263 --> 00:58:20.787

여기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누가

대통령에 당선됐어야 되냐면

00:58:20.887 --> 00:58:23.547

당시의 민주 인사들이 당선됐어야죠.

00:58:23.647 --> 00:58:30.177

그런데 전두환의 뒤를 잇는 노태우가

정상적인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.

00:58:30.277 --> 00:58:31.901

이게 정말로 너무나

어이없는 사건이에요.

00:58:32.001 --> 00:58:34.673

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

대선이 3개가 있습니다.

00:58:34.773 --> 00:58:39.914

56년 대선, 71년

대선, 87년 대선인데

00:58:40.014 --> 00:58:44.466

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했던 게

87년 12월 대선입니다.

00:58:44.566 --> 00:58:50.498

당시에 보수이자 전두환의

후임자를 자처했었던 노태우.

00:58:50.598 --> 00:58:54.978

이 사람 믿어주세요, 보통사람입니다,

라고 했던 사람 있었어요.

00:58:55.078 --> 00:59:01.661

당시에 부산, 마산 지역 일대에서

김영삼과 김대중은 둘 다 민주 투사였었죠?

00:59:01.814 --> 00:59:07.055

사실 여러분, 김영삼 대통령 하면
여러분은 다 IMF만 기억하시죠?

00:59:07.155 --> 00:59:10.403
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

00:59:10.503 --> 00:59:14.560
혹은 대통령 초반기까지는 정말로
멋진 삶을 살았습니다.

00:59:14.660 --> 00:59:18.466
물론 3당 합당이라는 아픔을
전 국민에게 주면서

00:59:18.566 --> 00:59:21.423
지금의 지역 구도를 만들어낸
장본인이기도 하지만

00:59:21.523 --> 00:59:28.056
그가 적어도 40, 50대 때까지는
우리나라 최고의 민주 투사였어요.

00:59:28.156 --> 00:59:29.358
그건 분명합니다.

00:59:29.458 --> 00:59:33.484
그런데 지금의 몇몇
사람들은 전두환이라든가

00:59:33.622 --> 00:59:35.703
노태우보다도 평가를 박하게
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

00:59:35.803 --> 00:59:37.077
제가 그래도 역사를 좋아하는
한 명의 사람으로서

00:59:37.177 --> 00:59:39.540
그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

00:59:39.640 --> 00:59:42.248
그다음에 그 이후
대통령이 되는 김대중.

00:59:42.348 --> 00:59:43.343
그다음에 김종필.

00:59:43.443 --> 00:59:47.764
김종필은 누구였었냐면
박정희의 조카사위예요.

00:59:47.864 --> 00:59:52.295
그리고 초대 중앙정보부장도
했었습니다, 보수였었고.

00:59:52.395 --> 00:59:55.134
그래서 이때 김영삼과 김대중
둘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

00:59:55.234 --> 00:59:57.327
무조건 이기는 거야.

00:59:57.427 --> 01:00:00.154

그런데 이때 둘 다
양보하지 않습니다.

01:00:00.254 --> 01:00:01.726

양보하지 못해요.

01:00:01.826 --> 01:00:05.084

그래서 노태우가 이 당시에
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

01:00:05.184 --> 01:00:10.378

34%라는 최저 득표율로
당선이 됩니다.

01:00:10.478 --> 01:00:16.440

그리고 아마 26%, 25%,
14%인가 그랬을 거예요.

01:00:16.540 --> 01:00:22.176

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
87년 6월 민주항쟁은

01:00:22.276 --> 01:00:25.144

지금의 잘못되었던
독재 정부를 타도하고

01:00:25.244 --> 01:00:28.781

새로운 민주 정부를
세웠으면 좋았을 텐데

01:00:28.881 --> 01:00:32.652

너무나 어이없게도 어디로
넘어가게 됩니까? 노태우에게.

01:00:32.752 --> 01:00:36.084

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에게
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서

01:00:36.184 --> 01:00:39.991

이것도 역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요,
4.19 혁명이랑 똑같아요.

01:00:40.091 --> 01:00:44.721

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민주
항쟁이라든가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

01:00:44.821 --> 01:00:48.895

혁명을 할 때보다 더 중요한
건 그 이후의 생활입니다.

01:00:48.995 --> 01:00:51.685

그리고 나서 88년도
총선에서는 여소야대.

01:00:51.785 --> 01:00:54.202

이말 이해하지 못하는
친구들 있던데요.

01:00:54.302 --> 01:00:57.342

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우리는
여당이라고 합니다.

01:00:57.442 --> 01:01:01.707
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전통적으로
여당이 언제나 과반수를 넘겼어요.

01:01:01.807 --> 01:01:06.191
그리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정당
전체를 다 야당이라고 합니다.

01:01:06.291 --> 01:01:08.129
그러니까 여당은 언제나 하나이고요.

01:01:08.229 --> 01:01:10.305
야당은 여러 개죠.

01:01:10.405 --> 01:01:14.827
그런데 이때 여당이었던
노태우 정당이

01:01:14.927 --> 01:01:19.270
전체 300석 가까운 데서 3분의
1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해요.

01:01:19.370 --> 01:01:20.769
야당이 더 크게 돼요.

01:01:20.869 --> 01:01:23.393
그렇게 되면서 이때 5공 비리.

01:01:23.493 --> 01:01:28.951
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에
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게 되는

01:01:29.051 --> 01:01:30.289
5공 청문회가 벌어지게 돼요.

01:01:30.389 --> 01:01:32.012
이때 청문회 시청률
장난 아니었습니다.

01:01:32.112 --> 01:01:33.793
제가 초등학교 때었는데
저도 똑똑히 기억나요.

01:01:33.893 --> 01:01:39.525
이때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사람이
바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.

01:01:39.625 --> 01:01:40.935
조선 의원이었죠.

01:01:41.035 --> 01:01:51.247
사실 변호사 노무현을 처음에 정치권에
끌어들인 인물은 김영삼이었습니다.

01:01:51.347 --> 01:01:54.834
그런데 선생님, 그 이후
노무현 대통령은

01:01:54.934 --> 01:01:57.792

김영삼 대통령이랑 완전 반대
행로를 가지 않습니까?

01:01:57.892 --> 01:02:00.647

맞아요, 그게 이 3당
합당 때문이에요.

01:02:00.747 --> 01:02:03.998

90년이 되니까 당시
노태우 정부에서

01:02:04.098 --> 01:02:08.985

대통령을 하는 데 자신을
믿어주는 국회의원 수가

01:02:09.085 --> 01:02:11.216

절반이 안 되면 국정
운영이 힘들어요.

01:02:11.316 --> 01:02:13.876

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해요.

01:02:13.976 --> 01:02:16.533

여당이 과반수를 못
차지하고 있잖아요.

01:02:16.633 --> 01:02:19.538

그러니까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랑

01:02:19.638 --> 01:02:25.023

김영삼과 김종필이
하나의 당으로 합칩니다.

01:02:25.123 --> 01:02:28.583

이게 민자당이에요.

01:02:28.683 --> 01:02:30.762

선생님, 그런데 희한하네?

01:02:30.862 --> 01:02:35.997

이거는 전두환의 뒤에 있는 사람이랑
김영삼이랑 같이 이걸 한다고요?

01:02:36.097 --> 01:02:36.936

이게 말이 돼요?

01:02:37.036 --> 01:02:39.396

그렇죠.
이게 합쳐지게 되면서

01:02:39.496 --> 01:02:43.350

우리나라 보수 구도가
충청, 경상도 지역까지

01:02:43.450 --> 01:02:46.021

전부 다 큰 벨트가 되고
전라도가 고립됩니다.

01:02:46.121 --> 01:02:49.509

이렇게 되면서 지역 구도가

극에 달해지게 되었던 것이죠.

01:02:49.609 --> 01:02:51.854

이러한 3당 합당,
잘한 겁니까, 잘못 한 겁니까?

01:02:51.954 --> 01:02:53.739

누가 봐도 잘못했죠.

01:02:53.839 --> 01:02:56.934

그것도 어떻게 이 둘이 합치는
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

01:02:57.034 --> 01:02:58.844

김영삼이 이걸 합칩니까?

01:02:58.944 --> 01:03:02.686

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했던
인물이 바로 노무현이었고

01:03:02.786 --> 01:03:06.825

노무현은 그래서 이 정당으로
들어가게 되죠, 평민당으로.

01:03:06.925 --> 01:03:13.221

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상도 사투리를
쓰지만, 전라도 당에 있었기 때문에

01:03:13.321 --> 01:03:15.778

그 이후부터는 아웃사이드의
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.

01:03:15.878 --> 01:03:18.781

하긴 또 그랬기 때문에 그
이후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지만

01:03:18.881 --> 01:03:20.812

어쨌든 그런 배경이
있었다는 것이고요.

01:03:20.912 --> 01:03:26.343

노태우 정부 시기가 시험 문제에
나온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.

01:03:26.443 --> 01:03:28.045

북방외교입니다.

01:03:28.145 --> 01:03:31.219

88년 2월부터 93년
2월까지 하거든요.

01:03:31.319 --> 01:03:36.250

이때 이 기간, 특히 80년대 말,
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되고요.

01:03:36.350 --> 01:03:37.711

그다음에 소련이 붕괴돼요.

01:03:37.811 --> 01:03:42.977

그렇게 되면서 이제는
냉전체제가 끝나게 되는데

01:03:43.113 --> 01:03:47.471

당시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
주로 중국과 소련 등이

01:03:47.605 --> 01:03:49.475

공산권 국가들이었거든요.

01:03:49.575 --> 01:03:55.314

그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
그 수교를 북방외교라고 합니다.

01:03:55.414 --> 01:03:59.214

이게 바로 6.29
민주화 선언입니다.

01:03:59.314 --> 01:04:02.739

첫째, 여야 합의로 조속히
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

01:04:02.839 --> 01:04:04.974

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

01:04:05.074 --> 01:04:08.655

88년 2월 평화적 정부
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.

01:04:08.755 --> 01:04:12.825

둘째, 최대한 공명정대한 선거
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, 라고

01:04:12.925 --> 01:04:16.694

1987년 6월 29일,
6.29 민주화 선언으로

01:04:16.794 --> 01:04:19.345

대통령 직선제가
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요.

01:04:19.445 --> 01:04:22.325

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추모제죠?

01:04:22.425 --> 01:04:25.921

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고문을
받다가 사망한 사건으로

01:04:26.021 --> 01:04:28.275

처음에는 정부가 이
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

01:04:28.375 --> 01:04:33.860

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정부의 도덕성에
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되었었고요.

01:04:33.960 --> 01:04:38.097

그 이후 93년부터 98년.

01:04:38.197 --> 01:04:42.390

당시에 김영삼 정부는
3당 합당이라는 구도.

01:04:42.490 --> 01:04:44.888

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
구도가 완벽하게 고착되는

01:04:44.988 --> 01:04:53.178

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93년,
94년 시기에는 김영삼의 인기는

01:04:53.278 --> 01:04:57.086

당시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는
서태지보다 높았습니다.

01:04:57.186 --> 01:04:58.106

최고였어요.

01:04:58.206 --> 01:05:02.242

대표적인 게 바로
금융실명제 실시해버리죠.

01:05:02.342 --> 01:05:08.608

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
도장 하나만 파서 가면

01:05:08.708 --> 01:05:10.153

아무거나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.

01:05:10.253 --> 01:05:11.673

김개똥이요, 통장 만들어주세요.

01:05:11.773 --> 01:05:13.944

만들어줬어요, 도장만
있었으면 돼요.

01:05:14.044 --> 01:05:16.931

실명으로 금융이 이루어지지
않았거든요.

01:05:17.031 --> 01:05:19.923

이때는 그런데 자기 신분증을
반드시 가지고 갔어야만 합니다.

01:05:20.023 --> 01:05:20.847

금융실명제.

01:05:20.947 --> 01:05:22.916

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

01:05:23.016 --> 01:05:25.391

당시의 조선총독부 건물이라든가
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

01:05:25.491 --> 01:05:27.628

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도 바꾸고

01:05:27.728 --> 01:05:31.140

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하는
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.

01:05:31.240 --> 01:05:35.921

그런데 문제는 96년도
경제 선진국 기구라고 하는

01:05:36.021 --> 01:05:40.256

OECD에 조금하게 들어가게
되면서 우리나라 IMF 체제라는

01:05:40.356 --> 01:05:42.806

정말로 국가 부도 사태를
초래하게 되면서

01:05:42.906 --> 01:05:45.780

지금도 너무나 역사에
박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

01:05:45.880 --> 01:05:50.239

김영삼 대통령은
우리나라 민주 투사로서

01:05:50.339 --> 01:05:54.410

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게
맞지 않나, 라는 생각이 있고요.

01:05:54.561 --> 01:05:55.485

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.

01:05:55.585 --> 01:05:58.492

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죠?

01:05:58.592 --> 01:06:01.300

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거
말씀드리면 되게 웃겨요.

01:06:01.400 --> 01:06:04.845

그 이후 이렇게 힘을
합쳐서 어떻게 됩니까?

01:06:04.945 --> 01:06:08.775

힘을 합쳐서 여기가 민자당이 되고

01:06:08.875 --> 01:06:11.908

김대중 혼자 떨어져나오게 되잖아요.

01:06:12.008 --> 01:06:14.579

그러고 나서 어쨌든 여기에서
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

01:06:14.679 --> 01:06:19.455

그다음에 김종필을 주려고 했는데 김종필한테
주는 걸 김영삼이 거부합니다.

01:06:19.555 --> 01:06:21.277

그러면서 이 사이가 또 틀어져요.

01:06:21.377 --> 01:06:26.708

그래서 당시 김대중이 또
누구를 포섭하냐면, 김종필을 포섭해요.

01:06:26.808 --> 01:06:31.755

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
이 정권을 뭐라고 하냐면,

01:06:31.855 --> 01:06:35.205

보통 김대중 대통령을 DJ라고
하거든요, 대중을 따서.

01:06:35.305 --> 01:06:39.839
그런데 DJP.
그러니까 대중중필, 이거죠.

01:06:39.939 --> 01:06:42.154
이걸 그래서 DJP
정권이라고 합니다.

01:06:42.254 --> 01:06:45.608
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
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펼쳤고요.

01:06:45.708 --> 01:06:48.628
2000년 6월 15일에

01:06:48.728 --> 01:06:52.806
남북 정상회담이
최초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.

01:06:52.906 --> 01:06:55.248
그 이후 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.

01:06:55.348 --> 01:06:59.163
권위주의 탈피 그다음에 시민기구의
활성화, 과거사 정리.

01:06:59.263 --> 01:07:00.949
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

01:07:01.049 --> 01:07:08.341
노무현 정부의 후광으로서
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?

01:07:08.441 --> 01:07:10.033
그다음에 이명박 정부.

01:07:10.133 --> 01:07:11.866
정권교체라든가 기업규제완화.

01:07:11.966 --> 01:07:18.284
사실 지금은 이것과 관련돼서
연일 많은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

01:07:18.384 --> 01:07:24.787
흑자들은 머지않아 이거에 대한
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

01:07:24.887 --> 01:07:27.097
구속된다고 주장하는
사람들도 있고요.

01:07:27.197 --> 01:07:28.968
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
잘 모르겠습니다.

01:07:29.068 --> 01:07:33.052
그리고 나서 이미 구속되어있는
박근혜 정부까지.

01:07:33.152 --> 01:07:35.541
여기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

01:07:35.641 --> 01:07:38.727
최순실이라고 써야 될지
정확히 잘 모르겠는데

01:07:38.827 --> 01:07:39.880
어쨌든 이렇게 됩니다.

01:07:39.980 --> 01:07:44.015
여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
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?

01:07:44.115 --> 01:07:47.454
1960년에 이승만 정부의
부정으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?

01:07:47.554 --> 01:07:48.772
4.19 혁명이 있었어요.

01:07:48.872 --> 01:07:51.513
신군부의 집권과 비상계엄 확대되면서
5.18 민주화 운동.

01:07:51.613 --> 01:07:53.704
그다음에 민주화 요구와
4.13 호헌 조치 때문에

01:07:53.804 --> 01:07:57.928
6월 민주 항쟁이 나오게 되었었다는
거 각각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1:07:58.028 --> 01:08:02.591
우리 현대 파트 오면
여기에다 뭐 갈 거냐면

01:08:02.691 --> 01:08:05.363
바로 그 이후 경제와
문화, 사회 파트.

01:08:05.463 --> 01:08:08.525
우리 현대 파트 다음 시간 1시간에
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01:08:08.625 --> 01:08:09.736
수고 수고 많으셨고요.

01:08:09.836 --> 01:08:12.556
다음 강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
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
01:08:12.656 --> 01:08:14.019
인사드리고 마칠게요.

01:08:14.119 --> 01:08:19.028
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~